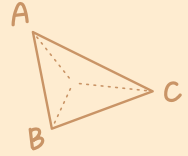


2025

WS 2025-12-223



2025년

대입 진로·진학 지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교육과정 및 대입 환경의 다변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학교 교육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진학 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입 진로·진학 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 현장에 축적된 진로·진학 지도 경험을 발굴하고, 우수한 지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특색을 바탕으로 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학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도, 자기주도 성장 코칭, 대학 정보 활용 교육 등 현장에서 쌓아오신 실제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번 우수사례집에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각 학교가 처한 여건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해 온 진로·진학 지도 경험을 담았습니다. 수록된 사례들은 입시 결과에만 초점을 둔 지도가 아니라, 학생의 선택과 성장을 존중하며 진로·진학을 함께 고민해 온 과정 중심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아울러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진로·진학 지도의 모습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학교와 교사 상황에 맞게 방향을 제시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의 미래를 위해 깊이 있는 고민과 지도를 이어오며 본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지도가 더욱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례집이 대입 진로·진학 지도를 고민하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김삼열



목차

대상

- | | |
|-----------------------------|---|
| 01
구리고등학교
교사 노연선 | 고3 담임, 처음이어도 괜찮아:
대교협과 함께 만든 진학지도 루틴 |
| 0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류진표 | 시기별 진학 지도 실제 및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례 |
| 03
인제고등학교
교사 송광석 | 일반고 학급 특색사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탐구·멘토링 결합형 진로·진학
지도 모델 -
'상승일로 프로젝트' |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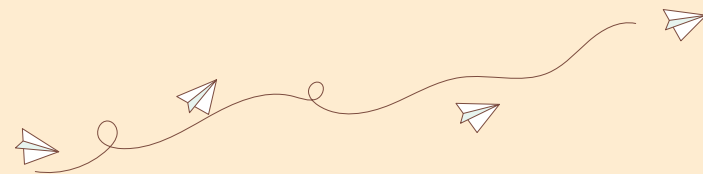
- | | |
|--------------------------|--|
| 01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사 고언경 |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
6등급의 학생부종합전형 성공기 |
| 02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 구분혁 | 진학 지도, 대교협과 함께라면
너도 잘알! 나도 잘알! |
| 03
서대전고등학교
교사 김승현 | Frontier 역량 기반 진로 나침반:
독서와 포털 자료로 설계하는
미래 진학 지도 |
| 04
남원고등학교
교사 류금희 | 학생이 찾아가는 대학길 -
'대학어디가'와 대입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한 자기주도형 진로·진학 사례 |
| 05
광주동신고등학교
교사 박선영 |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와
지속형 성장 코칭 시스템 |



우수상

- | | |
|---------------------------|--|
| 01
향일고등학교
교사 구종석 |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첫 고3 우당탕탕
진로진학 |
| 02
대구남산고등학교
교사 배대열 | '만족도 높은 진학 계획 수립'을 위한
느루자람 입시전략컨설팅(입시전설) |
| 03
상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재준 | 공교육의 힘으로 완성하는 자기 주도적
진로 진학 설계 |
| 04
동방고등학교
교사 전학일 | 教育正道에 기반한 대입 진학 지도 |
| 05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대상 | "학생 중심 맞춤형 진학 설계,
함께 성장하는 경화 진학 시스템" |
| 06
유봉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재완 | 마음을 움직이는 대입 진로 및
진학 지도 |
| 07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교사 조용환 | 우리의 진학, 나의 성장 |
| 08
의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채윤식 | 비주얼씹킹을 활용한 진로 진학 탐색과
놓여준 소규모 학교의 기회 균형 전형에
대한 이해 |
| 09
양정고등학교
교사 최경해 |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진학 A.C.티를 통한 일반고 2년 연속
다수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 |
| 10
덕암고등학교
교사 최재원 | 대교협 프로그램을 통한 진학 상담과
진학 교육으로 이루어 낸 공교육
신뢰성 회복 |





01
구리고등학교
교사 노연선

**고3 담임, 처음이어도 괜찮아:
대교협과 함께 만든 진학지도 루틴**

0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류진표

**시기별 진학 지도 실제 및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례**

03
인제고등학교
교사 송광석

**일반고 학급 특색사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탐구·멘토링 결합형 진로·진학
지도 모델 -
'상승일로 프로젝트'**



고3 담임, 처음이어도 괜찮아: 대교협과 함께 만든 진학지도 루틴



구리고등학교
교사 노연선

1. 고3 담임의 출발점

고3 진학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개인의 경험보다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학기 초, 학년부는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전체 진학지도의 공통 기반으로 설정하고 기본 기능과 활용 절차를 함께 익히는 시간으로 첫 단추를 맞추었다. 대교협이 제공하는 전국 단위의 전형 결과·합격 사례·전형별 데이터는 상담 방향을 잡아주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부 전체가 동일한 시각에서 진학지도를 출발할 수 있었다. 이 준비 과정 덕분에 고3 담임이 처음인 교사도 경험 의존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상담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분석·상담·기록’으로 이어지는 진학지도 루틴을 설계하는 토대가 되었다.

● 루틴 1.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 방법 익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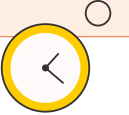
- 학기 초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 기본 기능 학습
- 활용 매뉴얼 공유 및 학년부 자체 연수- 입시 결과 조회, 전형 비교, 지원 가능성 분석 연습
- 신규 고3 담임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상담 준비 가능
- 학년부 전체가 공통 루틴으로 진학지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학기 초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 방법 안내 자료

★ Plus Know-how: 학생들도 학기 초부터 익혀야 하는 대입정보포털!

- 첫째, 학생들도 진로·진학 정보를 탐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기 초 대입정보포털의 검색 기능, 전형 정보, 모집 요강 열람 방법 등을 창체 진로 및 동아리 시간에 직접 실습하도록 안내한다.
- 둘째,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학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
학생은 희망 학과,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과의 연계성을 찾아보며 스스로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된다.
- 셋째, 1학기 말에는 ‘수시지원 계획서’ 작성 연습을 진행한다.
대입정보포털 자료를 참고해 희망 대학·전형·학과를 직접 정리해 보도록 하여,
학생이 스스로 지원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학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할수록 상담의 질도 높아지고, 교사는 보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전략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2. 학생을 알아가는 시간, 상담의 준비

진학지도는 학생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 학기 초 자기소개서 형식의 기초 설문과 상담을 실시해 학생의 희망 진로, 희망 대학·학과, 선호 전형 등을 파악했다. 수집한 응답은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비교과 활동·진로 연계성과 함께 분석하여 학생의 진학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하였다. 특히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전형별 입시 결과 데이터를 참고하여 학생별 예상 지원 가능 대학과 전형 적합도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시 상담용 기초 분석 자료’를 제작하여 본격적인 수시 상담 전에 학생의 강점, 전형별 유리 요소, 보완 필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형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도 전략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이 유리한 학생은 비교과 활동 및 세특 방향성, 교과전형 중심 학생은 과목별 성취도 향상 전략, 정시 중심 학생은 모의고사 분석과 목표 점수 설정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여 학생별 맞춤 진학지도를 실현하였다.

● 루틴 2. 데이터로 학생 이해하고 전형별 상담 설계하기

- 학기 초 자기소개서 및 상담을 통해 학생의 진로 방향과 희망 전형 파악
- 생활기록부·교과 성적·비교과 활동을 함께 분석하여 학생 특성 종합 진단
- 대교협 입시 결과(전형별 70%컷·합불 사례)를 활용해 전형 적합도 검토
- 학생별 희망 대학 및 학과 기반 ‘수시 상담용 기초 분석자료’ 제작
- 전형 유형(종합·교과·정시)에 따라 지도 전략을 차별화하여 상담 설계



시기별 진학 지도 실제 및 학교 맞춤 프로그램 운영 사례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류진표

1. 진학의 방향성 잡기

- 2월: 학생 진학 지도 설명회

[illegible]

본교 수능영어 누적등급 비율

본교 2개년 국어, 수학 성적 비교

▷자습 참여에 따른 성적(백분위) 분포 현황												
	월				2차선		3차선		반칙률			
구분	3월	4월	5월	6월	110	30	50	60	30~110	50~60	60~50	
전체학생	187명	187명	187명	187명	68.78	92.33	62.74	55.71	2.15	6.15	7.63	
보통교육과정(2년)	32명	32명	32명	68명	68.74	58.32	68.68	64.61	1.78	3.34	4.43	
특수교육과정(2년초등)	72명	72명	61명	67명	68.61	58.33	69.96	63.55	0.28	1.81	5.41	
특수교육과정(2년중등)	109명	110명	112명	111명	68.69	97.38	68.66	61.33	0.70	1.47	3.53	
정신장애학생(2년)	17명	18명	14명	11명	66.62	67.75	69.21	66.97	0.98	1.46	3.24	
일반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68명	62명	67명	71명	68.33	97.79	68.25	61.94	0.86	0.95	3.61	
전체학생	32명	32명	34명	32명	61.55	65.89	68.78	97.7	3.82	5.64	3.65	

▷자습 참여도에 따른 수능 결과?												
백분위(국수영[2])										전반		
3월	6월	9월	수능	3~9	9~11	11~100	100~90	90~80	80~70	전영	대위	
98.01	91.50	94.17	96.67							95.09	0	0
98.75	97.07	91.17	96.33							97.23	0	0
96.25	90.00	95.83	93.33							95.60	0	0
94.76	91.33	89.83	95.17							92.77	0	0
91.72	90.00	85.00	93.00							90.06	0	0
95.67	93.67	80.00	89.50							89.71	0	0
90.70	83.17	91.00	88.33							91.55	0	0
93.58	90.50	91.67	87.50							90.72	0	0
75.03	69.17	79.83	85.67							77.42	0	0
79.92	78.33	82.60	84.83							81.03	0	0
92.59	89.33	87.33	84.50							88.44	0	0
87.00	75.33	79.33	83.17							81.36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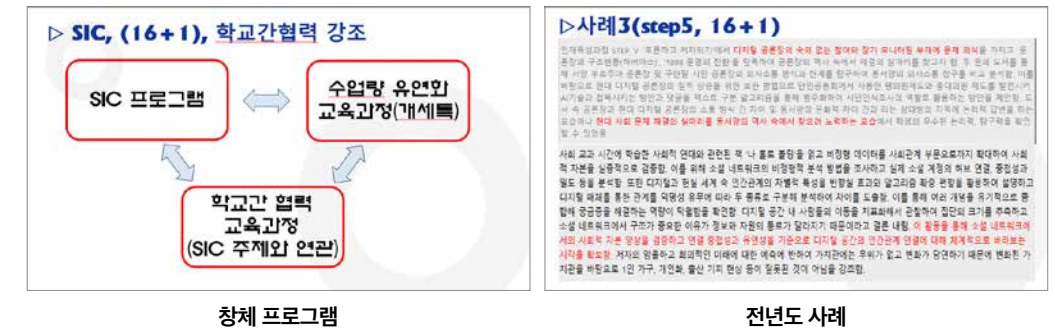
자습 참여에 따른 성적 분포

자습 참여도에 따른 수능 결과

학생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진학 방향을 논의할 때 지난 졸업생들의 성적 추이와 진학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정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모의고사 성적 간의 관계를 지난 졸업생들의 매월 자습 참여도에 따른 성적 현황을 공개해 자습 참여도에 주목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각 반별 자습 참여도가 올라갔고 이후 있을 방과후 수강 신청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3월: 교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프로그램 참가 설명회



3학년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전년도 사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종합전형 준비와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게 수험생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과 수업량 유연화 교육과정까지 연계해 생활기록부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탐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과정을 소개하며 종합전형에서 우위를 가져가자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2. 6모 대비 3, 4월 토크아보기

2025학년도

조대여고 3,4월 토크아보기

1. 일시 : 2025년 5월 2일[금] 13:10~
2. 장소 :각 반 교실(방송 송출)

충주선대대학교육지원과 권해보

>3모 기준 전남대 배치표(하위80%~결선)

3모	인문		자연		원점수	
	모집단위	표준점수	모집단위	표준점수	급간	백분위
	손라교육과	330	충송식물학과	340	167~177	68%~72%
	사회학과	330	의류학과	339		
	사학과	336	신원자연학과	338		
	육아교육과	335	치교한경과제부	336		
	불어불문학과	334	동물자연학과	334		

3, 4월 토크아보기

3모 기준 전남대 배치표



3~6월 방과후 현황

▷4월 자습 현황

	정	자	소	문	회	주 (주2)	주 (주3)	주초등교사
4월 1주차	128	101	126	121	98	63	X	
전월 대비	▼21	▼23	▼12	▼19	▼10	▼14		
4월 2주차	135	119	89	106	이승현 전달부	X	X	X
전월 대비	▼14	▼21	▼82	▼27				
4월 3주차	138	122	160	117	130	92	69	X
전월 대비	▼1	▼14	▼48	▼17	▲4	▲1	▲2	
4월 4주차	143	121	110	117	114	96	65	X
전월 대비	▲3						▲2	
합계	136.7	122.5	97.8	116.5	121.7	92.0	65.7	
월14일까지 전월 대비	82.7	72.5	58.6	69.7	72.5	54.3	39.7	
전월 대비	89.5	84.8	81.5	85.9	89.9	79.9	82.5	

자습 현황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6월 수능 모의평가 대비 자신의 공부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대다수의 학생이 1차 목표로 삼고 있는 전남대 배치표를 하위 80%와 끝선을 기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입시

5. 재단 산하 고등학교 자료집 제작

[illegible]

동국대 2개년 비교(예시)

[illegible]

동국대 입학 결과

4년간 이어져 온 재단 산하 두 학교의 자료집 제작에 올해 3학년 진학 스터디에서 했던 내용을 대학별 간지 형식으로 만들어 해당 자료집만으로도 대부분의 입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본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자료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6. 후기

본교 학생들의 3개년 결과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최근 입시의 방향성을 정시에도 초점을 맞춰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더 향상되어 간다고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습 참여에 대한 고민을 아예 불식시키진 못했지만, 자습별 참여 현황에 따른 성적 추이 현황은 학생들이 좀 더 자습 및 방과후 수업 참여에 유인가를 가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학교가 문을 개방하고 참여를 독려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입시 정보의 접근성이 어느 때보다 용이한 지금,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학생들에게 적재적소에 전달하며,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신뢰를 갖고 한 방향을 향할 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MEMO





일반고 학급 특색사업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탐구·멘토링 결합형 진로·진학 지도 모델 - '상승일로 프로젝트'

인제고등학교
교사 송광석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특목·자사고와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 쉬운 일반고 3학년 학생들에게, 학급별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일반고 안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진로·진학 준비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상승일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학급별 특색사업을 운영하였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학급 자치반, 개별 탐구반, 팀별 탐구반,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반, 아침 면학반,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 등을 조직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동의 전 과정을 학교생활기록부(창체,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기록을 학종에 적합한 구조로 개별화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진학 전략 측면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정보포털에 공개된 전형별 합격자 성적 데이터를 토대로, 학생별로 도전·적정·안정 대학군을 현실적으로 설정하였다. 단순히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현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교과 학습, 개별·팀별 탐구,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 면접전형 대비, 수리논술전형 대비 등으로 채워가는 역산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향하였다.

또한,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졸업생 멘토링을 운영하고, 선배들이 실제로 수행했던 탐구활동, 면접 질문과 답변 경험, 수리논술 준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였다. 합격 선배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탐구와 면접, 수리논술 준비를 실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특색사업과 진학 준비활동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목표였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기초 진단 및 개인 로드맵 수립

3월 초 전원 1:1 상담을 통해 학생부 기록,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기존 동아리 및 진로활동, 독서 이력, 희망 진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가장 몰입했던 수업활동', '시간을 잊게 만든 경험', '설명할 때 자신 있는 주제' 등을 질문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언어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학급별 특색사업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승일로 프로젝트'의 구성(학급 자치반, 개별·팀별 탐구반,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반, 아침 면학반,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을 설명하고, 각 프로그램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생활기록부 어느 영역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해력과 논리 전개력, 수리적 사고력을 함께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에게는 수리논술전형 준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희망자 중심으로 논술 대비 트랙 참여를 권장하였다.

• 대교협 데이터 기반 목표 대학 설정

기초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시간마다 대교협 대입정보포털의 전형별 합격자 성적 데이터를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였다. 학생의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을 실제 합격자 분포와 비교하며, 각자에게 도전·적정·안정 3단계 목표 대학과 학과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을 학업성취는 충분하나 활동과 면접 준비가 부족한 유형, 활동·탐구·독서 경험은 풍부하나 학업성취가 다소 부족한 유형, 수리논술전형 병행이 효과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맞춤 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형의 경우 개별 탐구 심화,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 모의 면접을 통해 서류 및 면접 역량을 보완하게 하였고, 두 번째 유형은 아침 면학반과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을 통해 교과 성취를 보강하도록 지도하였다. 수리논술 병행 유형 학생에게는 계열별 주요 대학의 수리논술 기출 문제를 분석해 정기적인 수리논술 스터디에 참여시키고, 논설 구조·수식 표현·도표 해석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다.

• 학급 특색사업과 연계한 역량 강화

연간 일정에 따라 3~4월에는 공동체 역할 나누기, 학습 멘토링 조직, 진로 디자인 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해 학급 운영의 기본 틀을 세웠다. 5~6월에는 공동체 역할 수행, 팀별 학습 멘토링, 진로 디자인 개별 및 팀별 탐구, 진로 독서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고, 7월에는 상반기 우수팀 평가회 및 시상, 진로 디자인 학습공동체 활동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상반기 활동을 정리하였다. 팀별 탐구 결과를 학기 말 학급 발표 운영 부스 및 재능기부 활동으로 확장하여 공동체 역량까지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 자치반은 학급 오리엔테이션(진진가)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자치 규약을 만들며 갈등을 민주적 토론과 설득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개별 탐구반은 희망 진로와 연계된 주제를 자율 선정하여 책·논문·기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탐구하고, 산출물을 제작 및 발표한 후 자율적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팀별 탐구반은 개별 탐구 주제들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학기 말 부스를 운영하여 동료 학생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재능기부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반은 진로 관련 도서를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과 글쓰기를 진행하며 독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전시하는 활동을 통해 진로역량과 언어적 표현력을 동시에

길렀다.

한편, 아침 면학반은 등교 후 조회 전까지 자기주도 학습시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수학과 과학 등 주요 과목의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필요시 아침 학습지를 제공하고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함께 학습하며 면학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은 학습 플래너 작성과 과목별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을 점검 및 지원하도록 운영하였다. 멘토 학생이 주기적으로 설명과 질의응답, 공부법 공유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역량과 학업 역량이 동시에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급 특색사업 운영은 학업·진로·공동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동시에, 활동의 전 과정이 학생부 기록과 직결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서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왔다.

● 학생부·면접·수리논술 준비 피드백

각 활동 후 학생들에게 소감문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부 기재 초안을 설계하였다. 이후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과 함께 문장을 수정 및 보완하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공동체 역량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조를 점검하였다. 면접 지도에서는 개별 탐구와 팀별 프로젝트, 맞춤형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모의면접을 반복 실시하며,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동기-과정-결과-한계-확장 구조로 답변을 정리하는 연습을 지속하였다. 수리논술 지도에서는 계열별 수리논술 기출을 주 1회 이상 꾸준히 풀이하며, '지문 분석→문제 구조 파악→풀이 전략 설계→서술식 답안 작성→루브릭 기반 첨삭→구술형 설명'의 사이클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 풀이능력을 넘어, 논리적 서술과 수식과 도표를 활용한 설명 능력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학급 부스 운영 모습



● 졸업생 멘토링 운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졸업생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사전 설문을 통해 재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수집한 뒤, 졸업생에게는 고교 재학 시절 수행했던 개별 및 팀별 탐구활동, 맞춤형 독서 및 포트폴리오 구성, 동아리 및 봉사활동, 프로젝트 경험, 실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과 답변 전략, 수리논술전형 준비 경험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멘토링 당일에는 계열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발표 후에는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내가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 제출하게 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하였다. 합격한 선배들이 자신의 탐구활동과 면접·수리논술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한 덕분에, 학생들은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후 개별 탐구 참여율, 아침 면학반 출석률, 모의 면접과 수리논술 스터디 참여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급 프로젝트 운영 모습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첫째, 데이터 기반 현실 진단에서 출발하는 상담이다.

반 학생들의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과 목표 대학, 희망 전형 유형을 엑셀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상담이 있을 때마다 최신 성적을 반영해 도전·적정·안정 대학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교협 대입정보포털의 전형별 합격자 성적 데이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막연한 상황 및 하향 지원에서 벗어나 현재 위치·보완 시 도전 가능한 범위·면접·활동·수리논술로 보완할 부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조언이 아닌, 보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학 전략 설계가 학생들의 신뢰와 실행력을 높여 주었다.

• 둘째, 학급 특색사업을 학생부 설계 플랫폼으로 바라본 점이다.

학급 자치반, 개별 및 팀별 탐구반,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반, 아침 면학반,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을 각각의 단발성 행사로 운영하지 않고,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개인세부능력 특기사항과 행동특성을 유기적으로 채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하였다. 개별 탐구에서 시작된 주제가 팀별 탐구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학급 발표 운영 부스와 재능기부 활동으로 이어지며, 자율적 교육과정 발표와도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생 한 명의 활동이 여러 영역에서 일관된 서사로 읽히도록 디자인하였다.

• 셋째, 디자인 관점에서의 생기부 문장 구성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해 진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2~3개씩 설정하고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탐구 보고서, 독서 기록, 학급 프로젝트 문장을 모두 키워드와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학생이 소감문이나 보고서에서 사용한 표현을 최대한 살리되, 학교생활기록부 문체에 맞게 정제함으로써 학생의 실제 목소리와 기록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하였다.

• 넷째, 학생 주도 학급 운영구조를 구축한 점이다.

학급 자치반과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 아침 면학반은 교사가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장단과 부서장, 과목별 학습 멘토가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학생 스스로 자치 규약을 만들고 갈등을 토론과 설득으로 해결하면서 공동체 역량을 키웠고, 학습 플래너를 활용한 아침 면학반과 과목별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학급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다.

• 다섯째, 졸업생 멘토링 설계방식이다.

단순한 진학 특강이 아니라, 사전 설문을 통해 재학생의 질문을 수집하고, 졸업생에게는 탐구-동아리-프로젝트-면접 및 수리논술 준비 경험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발표를

요청하였다. 멘토링 후에는 학생들에게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적어 내도록 하고, 담임이 이를 이후 상담·지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조함으로써, 멘토링 내용을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 여섯째, 수리논술전형 준비를 단기 특강이 아닌 상시 루틴으로 설계한 점이다.

계열별·대학별 수리논술 기출 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출을 풀이하였다. 풀이 과정은 지문·조건 분석→ 문제 구조 파악→ 해결 전략 수립→ 서술식 답안 작성→ 루브릭(논지·근거·구조·표현·수식) 기반 첨삭→ 구술형 설명으로 고정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쓰는 방식’, ‘말로 설명하는 방식’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장기·루틴형 수리논술 준비는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력과 서술 능력을 동시에 키워 주며, 수리논술전형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어 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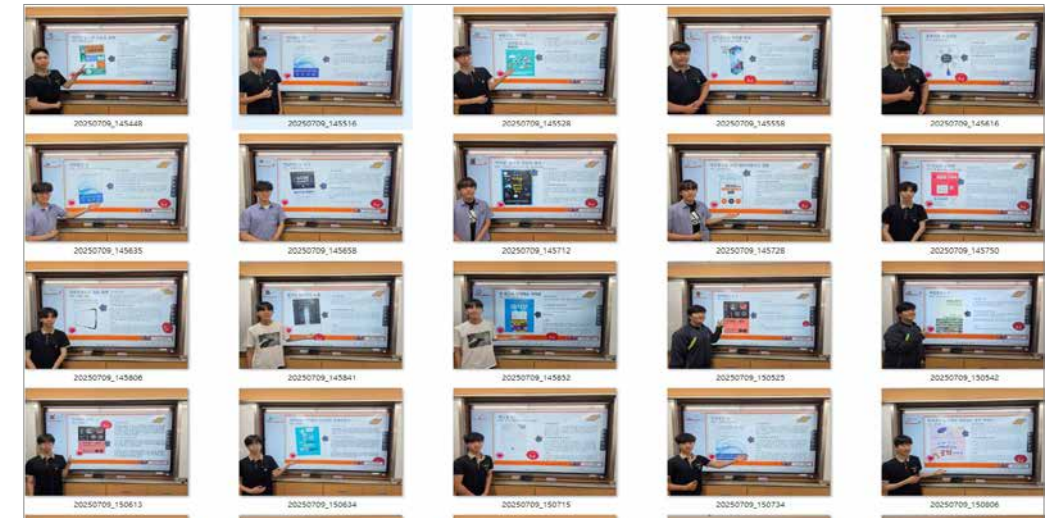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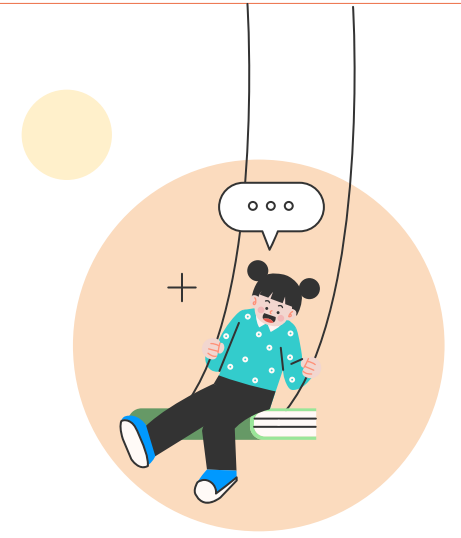
‘상승일로 프로젝트’ 운영 결과, 일반고 학급에서도 학급 특색사업-데이터 기반 상담-졸업생 멘토링-수리논술 대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학생들의 진로·진학 준비 수준과 자기효능감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아침 면학반과 스스로 학급 멘토링반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되는 사례가 많았고, 진로 역량 면에서는 개별 탐구와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 적합한 탐구·독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는 학급 자치반 운영과 팀별 탐구, 학급 발표 운영 부스 활동을 통해 협업·소통·책임을 배우는 경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특히, 졸업생 멘토링의 효과가 컸다. 합격한 선배들이 자신의 탐구활동과 면접·수리논술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려주면서, 현재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및 팀별 탐구반과 독서 프로젝트, 아침 면학반, 수리논술 스터디를 단순한 ‘학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합격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멘토링 이후 “나도 선배처럼 탐구 주제를 더 깊게 가져가야겠다”, “면접에서 질문받을 만한 활동을 학기마다 하나씩 만들자”, “수리논술 기출을 꾸준히 풀어 보자”와 같은 자발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학급 프로젝트 참여도와 활동의 질, 수리논술 대비의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드러났다.

• **첫째**, 지금까지 축적된 대교협 데이터 분석 결과, 전형별 합격 사례, 활동·기록 연계 예시, 졸업생 멘토링 핵심 조언, 수리논술 기출 및 우수 답안 사례 등을 학년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여러 담임교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별 학급의 성공 사례가 학년 전체의 공통 자산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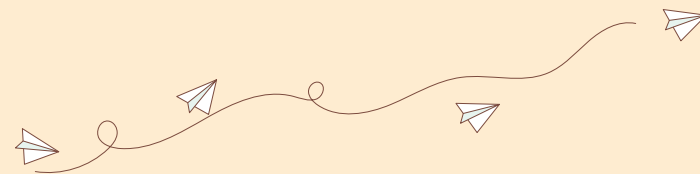
- **둘째**, 탐구와 논술의 질적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연구 질문 설정·자료 수집·분석·해석·보고서 작성·발표 방법을 다루는 탐구 방법론 워크숍과, 논리적 글쓰기, 도표 해석 등을 다루는 수리논술과 융합논술 워크숍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보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활동 초기부터 탐구와 논술의 기본기를 탑재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 **셋째**, 현재는 주로 3학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진로·진학 지도를 2학년 학급과도 연계하여, 2~3학년을 관통하는 장기 로드맵 안에서 개별 탐구, 맞춤형 독서, 수리논술 준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한다.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 키워드를 설정하고, 탐구·독서·프로젝트를 해당 키워드와 연결해 나간다면, 3학년 시점에서 훨씬 밀도 있는 학생부와 논술·면접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 **넷째**, 졸업생 멘토링을 기반으로 한 학급-졸업생 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정 학기에만 집중하는 행사가 아니라 학기별 정례 프로그램과 온라인 화상 멘토링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인문·사회·자연·공학·교육·예체능 등 다양한 계열의 졸업생을 초청하고, 수리논술전형·학생부종합전형·교과전형 등 전형별 합격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일반고 학생들도 학교 안에서 충분한 정보와 롤모델을 얻으며 자신만의 진로·진학 스토리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학급 맞춤형 독서 프로젝트 운영 모습



학급 활동 정리 패들렛 운영 모습



01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사 고연경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
6등급의 학생부종합전형 성공기**

02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 구본혁

**진학 지도, 대교협과 함께라면
너도 잘알! 나도 잘알!**

03
서대전고등학교
교사 김승현

**Frontier 역량 기반 진로 나침반:
독서와 포털 자료로 설계하는
미래 진학 지도**

04
남원고등학교
교사 류금희

**학생이 찾아가는 대학길 -
'대학어디가'와 대입상담프로그램을
연계한 자기주도형 진로·진학 사례**

05
광주동신고등학교
교사 박선영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와
지속형 성장 코칭 시스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 - 6등급의 학생부종합전형 도전기

고양국제고등학교
교사 고언경

1. 진로 없는 진학은 공허하다

‘진로와 함께 가는 진학은 오직 공교육 안에서만 가능하다’ 10여 년 동안 고3 담임을 하며 지닌 나의 사명이다. 대학 진학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기에 진로와 무관한 맹목적인 진학에만 몰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본질이 대학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학급 안에서 팀을 구성해 함께 피드백하며 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설사 입시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간 경험은 분명 좋은 삶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 내신이 낮다고 탐구력이 낮은 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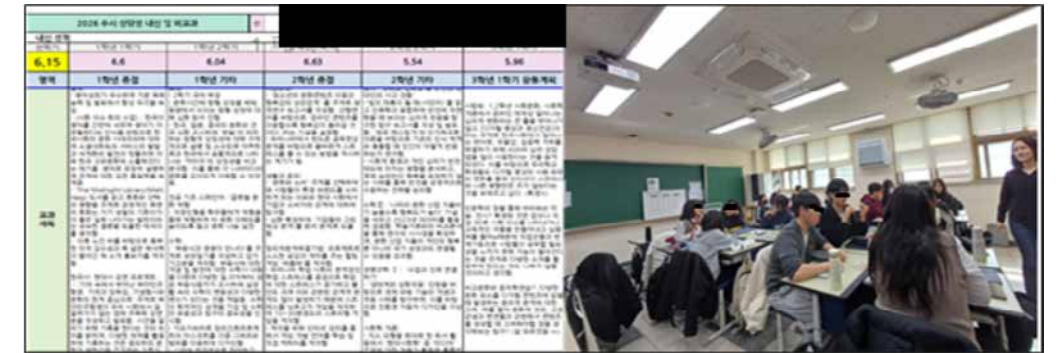
학생 A: 내신 6.2등급,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을 통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문화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학생, 문화콘텐츠학과 진학 희망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은 분명 중요하지만 내신이 곧 탐구력은 아니다. 정량적인 내신이 낮더라도 자신만의 탐구의 힘을 키워나간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불어 중하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이 진학 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 intro 뼈대 세우기(4학기 생활기록부 분석 및 5학기 로드맵 설계)

자신의 4학기 활동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 A학생 역시 자신이 했던 수많은 수행평가와 교과활동들을 한 동기, 활동을 통해 배운 점, 후속활동 등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태였다. 먼저, 학생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교과, 창체 영역으로 구분해 가장 중요했던 활동과 그 이후 가졌던 궁금증, 후속탐구 주제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학급 입시 시트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각 대학에서 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입학사정관의 안내 영상 등을 모둠에서 함께 공부한 뒤 종합전형의 본질과 평가 요소 등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5학기에

자신이 탐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활동 말판들을 표로 정리하고, 4학기와 연계해 심화 확장하고 싶은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계획하며 모둠에서 공유하도록 하였다.



• 대교협과 함께 진학으로 up!

A학생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생각은 뚜렷한 반면, 구체적인 입시정보와 연결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교협에서 만든 ‘대학 어디가?’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기에 학생들이 직접 해당 관심 분야와 연결된 학과 정보와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안내했다. 또한 전년도 입시 결과보기 기능을 통해 해당 대학의 일반고 학종 지원 내신 범위뿐 아니라 수능 최종 등록자들의 백분위값을 통해 정시 기준선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했다. 특히 학과검색 기능을 통해 학생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콘텐츠 관련 학과들이 여러 대학에 다양한 학과로 개설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고, 직업정보 기능을 통해 졸업 후 관련 분야의 전망, 필요 역량 등으로 확장해 장기적인 로드맵 설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illegible]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개인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3년간 학생의 서사를 평가하는 것이다. 담임으로서 학기 초에 항상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학생부종합전형 본질과 평가 요소를 이해하게 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한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의 개념을 모른 채 문제풀이 방식만 익히는 것과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이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만의 세계관에 갇혀 소위 있어 보이는 주제 탐구활동들을 하는 데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모둠을 구성해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한 뒤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다. 또한 5학기에도 정기적인 모둠활동을 통해 서로 탐구활동의 방향성과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도 했고,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입시전형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은 '함께할 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확고히 해주었다.

또한 대교협에서 만든 대학어디가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입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시 단계에서 정시와의 대략적인 비교가 필요할 때 대교협의 전년도 입시 결과 영역은 모든 대학의 정시 결과를 백분위로 제시하고 있어 학생 입장에서 모의고사와의 비교를 통해 수시 지원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더불어 유·무선으로 입시상담 기능은 대교협 소속 선생님들의 통찰력과 뛰어난 입시 분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였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 사항

일반고와 특목고에 모두 근무하며 특목고의 입시 결과의 표본이 너무 적은 점이 아쉬웠다. 외고와 국제고 같은 특목고에서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많은 만큼 입시 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고든 특목고든 학교 생활 안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그 서사가 대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며, 대교협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은 러닝메이트인 교사가 가장 믿을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는 존재이다. 사교육의 컨설팅을 공교육 내 입시 지도의 힘보다 맹신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충분히 잘 가꾸고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MEMO





진학 지도, 대교협과 함께라면 너도 잘알! 나도 잘알!

천안두정고등학교
교사 구본혁

안녕하세요? 천안두정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구본혁입니다. 작년까지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고등학교로 옮기자마자 3학년을 맡게 되어, 진학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각종 연수도 따라다니며 정보도 얻고, 개인적으로 책도 읽고 주변 선배 교사분들께 조언도 들어가며 진학 지도 준비를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이면서도 수월하게 진학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공모전에 응모합니다.

1. 진학 지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첫 해부터 3학년 같은 중책(?)을 맡기시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업무분장표를 받아 들고 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시에 관한 기억이라고는 제가 대학 진학할 때의 기억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3월이 되자마자 학급 아이들의 내신 석차 자료와 진학 희망 대학, 학과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진학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입결 자료가 갈무리된 두터운 책자와 잘 쓸 줄도 모르던 UNIV 지원예측 프로그램을 봉사 문고리 잡듯 써가며 상담을 하려니까, 당장 저부터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학급 대부분이 자연계열의 수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 보니 부담은 더 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년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대교협 프로그램을 보면 UNIV 프로그램보다는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마침 당시가 작년도 합불사례 수합이 마무리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니, 기존에 제가 봐오던 입결 평균, 70%컷, 80%컷 등 자료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을 검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5월경에 학생 상담을 진행할 때부터는 대교협 프로그램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경에는 충남 지역에서 진행된 대입 상담 프로그램 협력고교 교사 연수에도 참석해 보았는데, 시의적절하게도 3개년 내신성적이 산출되던 시기라서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들도 많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2.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찾아온 특이점

• UNIV 대비 학생 개개인 사례 중심의 입시 결과 파악 가능

대교협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해도 사례 중심의 입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제 등급이 이 학교·학과의 입결에 안정적인 게 맞나요?"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속 시원하게 '그렇다·아니다'로 답해주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컸습니다. 각 대학마다 입결을 발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일일이 알아보고 확인시켜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대교협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3개년치 지원 학생들의 합격, 충원합격, 불합격 사례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어서 '이 등급이면 안정권이겠다', '이 등급이면 충원합격을 노려볼 만하겠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편했고, 학생들도 제 의견을 더 잘 이해했습니다. 또한 일반교과 등급과 대학별 환산 등급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학생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도 진학 지도에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 학생 상담 기록을 일일이 적지 않고도 상담 자료를 학생에게 전달 가능

1학기 때만 해도, 저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항상 한글 프로그램 창을 띄워두고,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요약하며 적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때로는 놓치는 이야기도 많아서 정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지 못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교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부터는 학생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대교협 프로그램 내에서 대부분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반영과목, 반영비율, 전형별 배점과 선발 인원 수 등이 한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있었고, 학생이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학교는 관심대학 리스트에 등록하여 다음 상담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학과, 전형 등을 헛갈려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심대학 리스트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출력해 주고 난 뒤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대학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도 바로 내려받을 수 있게 탑재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노하우

• 합격 사례뿐만 아니라 충원합격&불합격 사례도 함께 보기!

저는 원래 합격 사례만 위주로 진학 상담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7월경 협력고교 교사 연수를 통해 충원합격 사례와 불합격 사례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바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종합전형의 경우, 합격 사례와 충원합격 사례에서 겹치는 성적대의 사례가 어떤지 살펴보면, 기존에는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에게도 ‘서류 점수나 면접 점수 등이 받쳐준다면, 총원합격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에, 불합격 사례를 보았을 때 불합격 사유를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최저를 미충족한 사례의 빈도를 살펴보면, 모의고사 등급이 잘 나오지만 내신등급은 낮은 학생에게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합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언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 수시 사례 차트 그래프 보기!

최근 종합전형이 강조되면서 진학 희망 학과를 정한 학생들이 많지만,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고민이 깊은 학생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여기는 어때니?’하며 권유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저도 아는 바가 많이 없었기에 학과를 알아보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시 사례 차트를 살펴보니 학생 성적대에서 지원을 해볼 만한 학과를 알아보기가 수월했습니다. 위와 같은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교과전형으로 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수합된 합불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분포와 학생 성적을 비교해 보며,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숫자로만 빼곡히 채워진 표보다 그래프로 된 자료를 보여주니,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진 점도 소소한 장점이었습니다.



● 지원 내역을 그때그때 기록했을 때의 장점!

9월에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고, 저는 (학생들의 지원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 빨리) 실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조사해서 대교협 프로그램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1년간 많은 덕을 보았던 합불 사례를, 이제는 제가 직접 입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에만 그치지 않고, 각 대학별로 1단계 합격자 발표나 최종합격자 발표가 날 때마다 합불 여부도 바로바로 입력해 두었습니다. 대교협에 제공해야 하는 합불 사례 이외에도,

교육청 산하기관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나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합해야 할 내용이 생길 때에도 대교협 프로그램에 입력해 둔 합불 여부 내용을 활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학관리 탭에서, 바로 엑셀 파일로 저희 반 학생들의 합불 사례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교협 프로그램도 ‘학생성적-상담-지원사례-결과파악 일체화’가 가능한 것 같아서, 여러모로 편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숨 가쁘고 긴장되며 처절하기까지 했던 1년을 돌아보며

지난 11월 13일 저희 반 학생들이 수능을 보러 가는 날, 저도 학년부 선생님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능 고사장 교문 앞에 피켓을 들고 응원을 갔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봤던 꼭 9년 전의 제 모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는 다를지언정, 학창 시절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잘 발휘하고 싶다는 염원은 모두에게서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염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옆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학년부 선생님들께서도 늘 입을 모아 학업과 생활 태도를 칭찬하시던 학급 학생들이, 제 눈에도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하고 예뻐기 때문입니다. 출생아 수가 유난히 많았던 황금돼지띠의 아이들이, 매년 바뀌어 가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대교협 프로그램이 많은 힘이 되어준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합격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합불 사례에 저희 반 아이들의 사례가 모두 ‘합격’ 타이틀을 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Frontier 역량 기반 진로 나침반

- 독서와 포털 자료로 설계하는 미래 진학 지도

서대전고등학교
교사 김승현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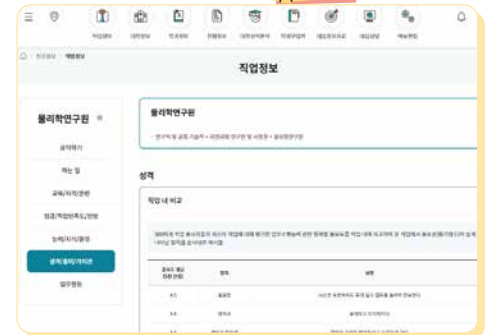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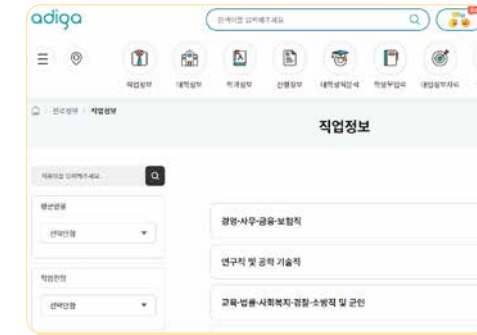
- 성적 중심이 아닌 ‘진로 중심’ 맞춤형 진학 지도
 - 단순히 성적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식
 - 학생의 흥미·전공 적합성을 먼저 탐색해, 성적은 이후 조정하는 ‘역(逆)진학 지도’ 방식 적용
 - 학생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장기적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수능 점수에 학과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진로 방향에 대학 전공 선택을 맞춘다”라는 철학이 중심
- 독서에서 출발하는 진로 탐색: 삶의 질문을 기반으로 진학 설계
 - 진학 설계의 출발점으로 독서 활동을 필수 요소로 설정
 - 학생이 읽은 책에서 스스로 던진 삶의 질문(why)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분야·전공·커리어로 이어지도록 지도
 - 독서→ 질문 생성→ 탐구 주제 설정→ 관련 활동 설계→ 전공 연결의 순환 구조를 형성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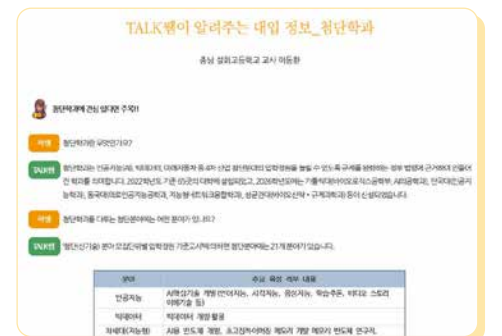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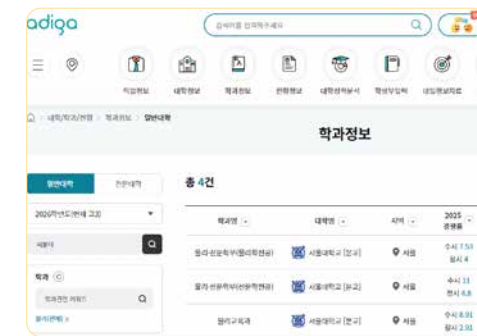
01 대입정보포털 활용 직업 정보 탐색(1학년)

- 삶의 문제의식 기반 직업 가치관 분석
- (예) 탐구에 흥미 ▶ 연구자 ▶ 물리학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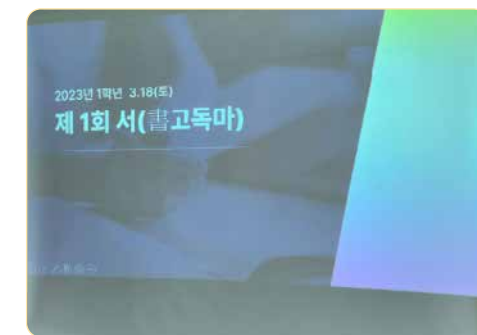
02 대입정보포털 대학 및 학과 정보(1학년)

- 관심사 관련 대학 및 학과 정보 탐색
- adiga대화형 검색 활용, talk쌤의 대입 정보



03 교내 독서 프로그램(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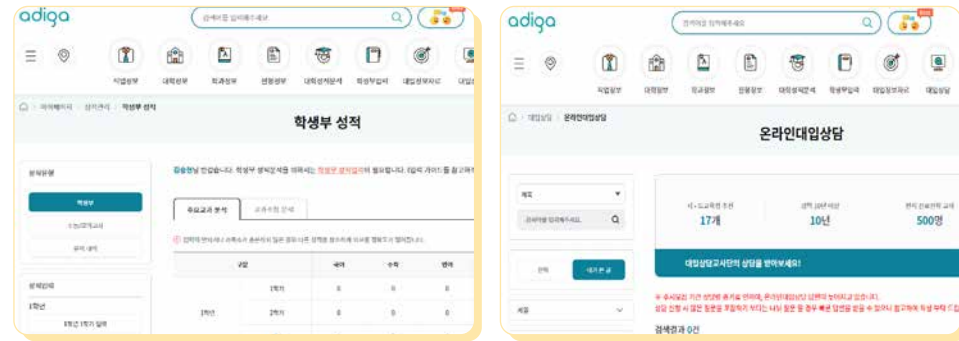
- 서(書)고독마 ▶ 무(無)박 2일 ▶ 독서 창업 캠프
- 스스로에게 삶의 질문(why) 도출 ▶ 전공





04 학생부 성적 입력, 교과조합(3학년)

- 삶의 문제의식 기반 직업 가치관 분석
- (예) 탐구에 흥미 ▶ 연구자 ▶ 물리학연구자



3.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세부 과정)

● 1학년: 대입정보포털 활용 직업·학과 정보 탐색

- 1학년 때, 먼저 삶 속 문제의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분석함. 예를 들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설정함. 이를 바탕으로 대입정보포털(adiga, TALK)을 활용하여 관심 직업과 관련 대학·학과 정보를 조사함
- 조사 과정에서 직업별 요구 역량, 관련 학과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가능성을 비교 분석함. 예를 들어, 물리학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은 ‘연구자’ 직업을 탐색하고, 국내외 물리학 관련 학과 정보와 학문적 커리큘럼, 연구기관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여 진로의 실질적 연계성을 확인함
-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은 자신만의 질문 목록을 작성하고, 직업과 학과 정보를 연결한 진로 탐색 보고서를 완성함. 이후 자기주도적 탐구 과정, 정보 분석 능력, 진로 구체화 능력을 경험함

● 2학년: 교내 독서 프로그램 기반 진로 탐색

- 서고독마, 무박 2일 독서 창업 캠프 등 교내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함. 독서 과정에서 ‘삶의 질문(Why)’을 스스로 도출하고, 이를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전공과 연결함. 실제로, “도시는 누구의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도시 공간 불평등 문제를 탐구하고, 건축·도시공학 전공과의 연계를 모색함
- 독서 후 핵심 아이디어와 질문을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전공 적합성 및 탐구 계획표를 작성함
- 활동 반복을 통해 문제 인식→ 질문 설정→ 전공 연계→ 탐구 결과 기록의 자기주도적 학습 사이클을 체험함.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구체화하고, 진로 방향성을 학문적 관점과 연결함

▶ 『서(書)고독마』

학생들은 학년과 관심 분야에 따라 1학년은 생명공학·기후위기·AI 등 테마별, 2학년은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별, 3학년은 희망 전공 분야 중심으로 독서를 진행하고, 읽은 도서를 리로스쿨에 기록함. 독서량은 5km, 10km, 20km, 42.195km 단계로 관리되며, 이를 통해 독서를 통한 삶의 질문 도출과 학문·전공 탐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경험함

▶ 『무(無)박 2일』

학생 개개인의 삶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밤새 도서를 읽으며, 도서 속에서 진로 방향을 탐구함. 단순히 성적에 맞춰 학과를 선택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흥미를 우선 탐색한 뒤, 필요할 경우 성적 정보를 참고하여 최적의 대학·전공 선택을 지원함. 지도 과정은 독서에서 출발하며, 학생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 던진 삶의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학문 분야와 전공, 장래 커리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됨.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독서와 질문 생성, 탐구 주제 설정, 관련 활동 설계, 전공 연계까지 이어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사이클을 경험하며, 장기적 성장과 진로 설계 역량을 동시에 확보함

▶ 도서 기반 창업 박람회 『Business Edu Bridge』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관련 도서를 탐독하며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 독서를 통해 도출한 삶의 질문과 문제의식을 대입정보포털에서 탐색한 직업·학과 정보와 연계하여, 실제 창업 과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진로 방향성과 전공 적합성을 구체화함.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서 실제 박람회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탐구 결과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실천적 경험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합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 설계 역량을 강화함



• 3학년: 성적 입력·교과 조합 기반 진학 설계

- 교과 성적과 관심 전공 정보를 입력하고, 교과 조합 분석을 통해 수시·정시 진학 전략을 비교함. “나에게 맞는 답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자신의 성적·관심·진로를 통합적으로 평가함.
- 온라인 대입 상담과 대입정보포털을 활용하여, 전공별 유·불리 분석, 적합한 대학군 설정, 지원 전략 수립을 수행함. 예로, 건축학과를 희망할 경우 수학·물리 성적과 비교하여 지원 가능한 대학군과 전형 유형을 정리함. 최종적으로 진로·진학 계획표, 자기소개서 초안, 질문과 답변 기록 등 구체적 결과물을 완성함. 이를 통해 자신의 탐구 과정과 성적 정보를 통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진학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함



4. Frontier 3C 역량 기반 독서·탐구 중심 진로·진학 지도 프로세스

- **1단계: 관심사·문제의식 탐색(Creativity)**
 - 활동 사례: 1학년 대입정보포털(adiga, 대학어디가, TALK) 활용 직업·학과 탐색
 -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 속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설정
 - 예: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은 무엇일까?”
 - 질문을 바탕으로 관련 직업과 대학·학과 정보를 조사하며 창의적 사고 발현
- **2단계: 독서 기반 질문 심화(Creativity + Communication)**
 - 활동 사례: 서고독마, 무박 2일 독서캠프 참여
 - 관심 분야 도서를 읽고 핵심 질문 도출 및 동료와 공유
 - 예: “도시는 누구의 공간인가?”→ 도시 공간 불평등 문제
 - 질문을 확장하여 탐구 방향을 구체화하고 동료·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 의사소통 역량 강화
- **3단계: 정보 탐색 및 분석(Creativity + Collaboration)**
 - 활동 사례: 독서 기반 질문을 대학어디가·대입정보포털 활용해 학과 및 직업 정보와 연결
 - 관련 학과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요구 역량 등을 비교·분석
 - 필요시 그룹 협업을 통해 분석 결과를 종합, 탐구 주제와 진로 연계성 확인
- **4단계: 실천·융합적 탐구(Collaboration + Creativity)**
 - 활동 사례: Business Edu Bridge, 창업박람회 운영
 - 독서와 질문 기반 탐구 결과를 현실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실천
 - 예: 창업 아이디어 구상→ 지역사회 문제 해결 적용→ 박람회 발표
 -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협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
- **5단계: 성찰 및 기록(Communication)**
 - 활동 사례: 탐구 기록장, 리로스쿨 독서기록지 작성, 발표 및 피드백
 - 질문, 탐구 과정, 전공 연계, 향후 계획을 기록하고 동료와 공유하며 의사소통 능력 강화
- **6단계: 진학 설계 및 의사결정 (Creativity + Collaboration + Communication)**
 - 활동 사례: 3학년 성적 입력·교과조합 기반 진학 설계
 - 대입정보포털을 활용해 전공별 유·불리 분석, 지원 가능한 대학군 설정, 수시·정시 전략 수립
 - 예: 건축학과 희망 시 수학·물리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 대학군 비교
 -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 질문과 답변 기록, 최종 진로·진학 계획 완성

5.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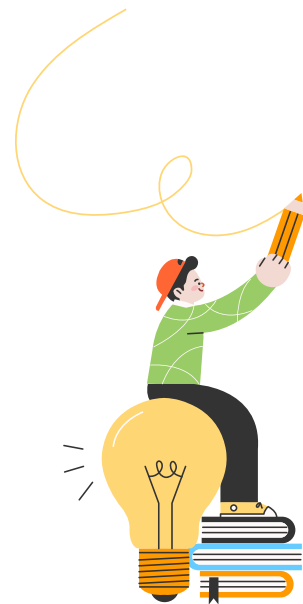
3년 동안 학생 각자의 삶 속 문제의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흥미와 가치관을 탐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예로,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학생이 설정하면, 소그룹 토론과 기록지를 활용하여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독서 활동은 학생의 질문을 심화하고 탐구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선택한 도서를 읽고 핵심 아이디어와 질문을 기록하였으며,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학문 분야와 전공 정보를 대입정보포털(adiga, 대학어디가, TALK)에서 조사한 자료와 연결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후 포털을 통해 학과 커리큘럼, 졸업 후 진로, 요구 역량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하였고, 이를 독서 기반 질문과 연계하며 탐구 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분석 예시와 자료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정리한 뒤 토론과 피드백을 거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Business Edu Bridge와 같은 창업 박람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탐구 결과를 현실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구현하였으며, 박람회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3C)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서와 질문, 포털 자료 분석, 실천적 탐구, 성찰까지 이어지는 자기주도적 학습 사이클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독립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기록과 포털 자료, 성적 정보를 통합하여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진학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체크리스트와 개별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전략 수립, 질문·답변 기록 등 실질적 진학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도 과정의 핵심은 학생 중심의 질문과 탐구, 포털 자료 활용, 협력과 발표, 성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장기적 성장과 진로 설계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6.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설정하고 포털 자료를 활용하며 진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이 크게 향상됨
- 독서-질문-탐구-전공 연계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학문적 이해와 진로 적합성이 명확해짐
- Business Edu Bridge와 박람회 활동을 통해 협업 및 3C 역량 경험이 강화됨
- 대입정보포털 자료 활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제공이 학생들의 탐색 효율성을 높였음
- 타 학교 적용 매뉴얼 제작 및 사례 공유 확대 필요
- 포털 자료 분석과 독서 기록 연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강화 필요
- 학생별 맞춤형 진로 상담과 피드백 기록을 포트폴리오에 통합하여 장기 추적 가능하도록 개선





학생이 찾아가는 대학길

- '대학어디가'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기주도형 진로·진학 사례

남원고등학교
교사 류금희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올해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 방향을 찾아가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전에는 교사가 정보를 알려주고 학생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쳤지만 진로 선택은 교사가 대신 정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학생이 직접 정보를 찾고 고민하며 다시 조정해 보는 과정 자체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 정보 탐색 능력 기르기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과 학과를 찾아볼 수 있도록 '대학어디가' 포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대학의 입시 결과 자체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직접 검색해 보며 전공 내용과 진로 정보를 비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탐색 능력이 길러지고 진로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었다.

• 현실적인 진학 설계 돕기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성적 데이터를 확인하고, 현재 수준에서 도전 가능한 대학과 전형을 함께 찾아보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함께 보니 학생들이 막연한 희망에서 벗어나 자신의 위치를 훨씬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조정해 보기도 했다.

• 진로, 전공, 과목, 진학의 흐름 잇기

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본 뒤 관련 선택과목을 연결해 보게 했다. 단순히 '이 과목을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 과목이 내가 가고 싶은 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과목 선택, 그리고 대입 준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학기 초- '대학 어디가'로 시작하는 진로 탐색

3월, 첫 상담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대학어디가' 포털을 활용하여 희망 대학과 학과를 조사하게 했다. 학생들은 사이트에 들어가 학과명, 개설 교과목, 졸업 후 진로를 찾아보았고, 입시 결과를 확인하고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별 희망 전공군(인문사회·공공인재·의학계열·경상계열·예술계열)을 분류하여 1차 상담을 진행했다.

• 중간고사 이후- 시험지 분석과 자기 점검

5월 중간고사 이후에는 '시험지 분석 활동지'를 작성하게 했다. 성적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틀린 문제 유형과 공부법, 시간관리 습관 등을 점검했다. 이 활동지를 기반으로 교사는 학생과 1:1 상담을 하며 '이 과목의 학습 태도가 희망 전공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경찰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생활과 윤리'의 '사회 정의' 단원에서 다룬 사례 분석 활동이 전공 적성과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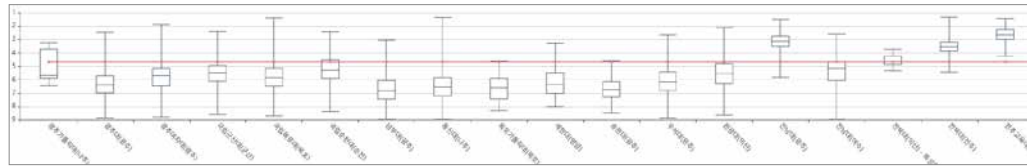
2학년 1반 _____ 번 이름: _____

과목	가장 많이 틀린 유형	내가 실수한 부분	내가 올랐던 부분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보완책



● 1학기 말- 대입 상담 프로그램으로 현실 진단

1학기 말에는 학생들의 성적 데이터가 입력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학 가능 대학과 전형을 함께 확인했다. 이 과정은 아직 진로 방향이 뚜렷하지 않거나 자신의 성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 특히 효과적이었다.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 학력기준을 함께 안내하며 자신의 현재 성적이 수시지원 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도전·현실·안정 대학’을 각각 선정하게 하고 그 근거를 직접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 2학기 초- 전공 탐구와 과목 선택 연계

여름 방학 이후에는 전공 탐구를 과목 선택으로 연결했다. 학생들에게 각자 조사했던 학과의 커리큘럼을 다시 살펴보게 하고, 해당 전공과 관련된 선택과목을 찾아보도록 했다. 각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과목 안내서’를 참고하여, “내가 희망하는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표로 정리하도록 했다. 이 활동은 실제 9월 말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상담으로 이어졌다. 당시 학생들에게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안내북’과 ‘단계별 미션 활동지’를 나누어 주었다.



● 10월- 선택과목 상담 및 시뮬레이션

최종 수강신청을 앞두고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개설 과목표’를 보며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서 권장하는 과목을 선택했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선택과목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선택한 과목 조합으로 수능

응시가 가능한지’,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에 따른 학습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대학 전형에서 어떤 과목이 반영되는지’, ‘교과 세특에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공동 교육과정 과목을 함께 소개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이나 인근 학교를 통해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간호학과를 희망하던 한 학생은 실제 ‘공중보건’ 과목 공동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전공과 관련된 학습 경험을 확장할 수 있었다.

● 2학기 말- 성장 점검 및 진로 상담 마무리

11월에는 1년간의 진로·진학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형 전공 탐구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먼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이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 자신이 설정한 희망 학과를 기준으로 탐구 주제를 정했다. 더불어 학기 초부터 진행한 전공계열별 소그룹 독서 활동과 생활기록부의 1학년, 2학년 활동 속에서 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게 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의 ‘지역사회 문제 토론 활동’이 행정학과의 정책 기획 역량과 연결되거나, 2학년 때의 ‘환경 윤리 토의 활동’이 생명과학 관련 학과의 지속 가능성 탐구와 이어지는 식이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습에서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 과정에서는 친구들의 탐구 주제와 비교하며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했고, 탐구 내용은 이후 생활기록부 진로활동 및 세부 특기사항 기록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활동을 기반으로 3학년 시기에는 심화 전공 탐구활동으로 발전시켜, 학생 개개인이 진로 연계 연구나 면접 대비 탐구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첫째, 데이터 기반 상담으로 신뢰도 강화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학생들이 상담 내용을 신뢰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를 활용하니 상담이 ‘감’이 아닌 ‘근거’ 위에 이루어졌다.

• 둘째, 학생 주도형 탐색 구조 확립

교사가 알려주는 정보보다 학생이 직접 검색하고 정리한 자료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학생 스스로 탐색한 내용이 상담의 중심이 되자, 주도성과 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 셋째, 전공 커리큘럼 탐구와 독서 기반 자율 탐구활동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단순히 과목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전공 커리큘럼을 직접 탐구하고 독서를 진행하는 활동을 운영했다. 먼저 희망 학과의 교과과정표를 분석하여 주요 전공 과목을 찾아보고, 그중 관심 있는 과목과 연계된 전공 도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산운영관리’ 과목과 관련된 도서 <더골>을 읽으며 효율성과 경영 의사결정의 의미를 탐구했다.

학생들은 전공 관련 도서에서 인상 깊었던 개념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자율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급 내에서 발표회를 진행했다. 발표 과정에서는 친구들의 탐구 주제와 비교하며 자신의 진로 방향을 구체화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전공-교과-탐구’가 연결된 성장형 학습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지도의 핵심은 단순히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면, 교사의 역할은 방향을 대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상담으로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는 일이었다. ‘대학어디가’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면서 학생들은 막연한 진로 희망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었고, 전공 커리큘럼 탐구와 자율탐구 발표를 통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스로 확장해 나갔다. 이처럼 교사의 데이터 기반 상담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가 결합될 때, 진로 지도는 단순한 진학 지도를 넘어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분석 활동지를 개발하여, 학기별 활동과 교과 세트를 돌아보고 진로 방향과의 연계성을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면접 대비나 전공 탐구 보고서 작성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자기주도 진로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관심사를 구체화하고 탐구의 깊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사 개인이 모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마련된 대입 상담 프로그램과 학교 내 진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자체보다, 그 데이터를 학생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 설계에 활용하도록 돕는 교사의 안내라고 믿는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진로 지도의 본질은 ‘길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학생이 자기 길을 탐색하고 성장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로서 그 걸을 든든히 지켜주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진학 설계와 지속형 성장 코칭 시스템

광주동신고등학교
교사 박선영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지난 10여 년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담당하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진학 지원을 목표로 설정해 왔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진학 지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진로 흥미 및 적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 및 학과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상향 합격률을 약 1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학기별 성적, 선택 과목, 비교과 활동, 진로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개별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개선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 역량 강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워크숍, 멘토링, 모의 상담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 진로·진학 및 상담 과정

진학 지도는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전략 수립→ 개별 상담→ 결과 점검의 4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본교 진학부장으로서 학생 개인 맞춤형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 기초 데이터 수집 및 SWOT 분석

3학년 진입 전, 학생 개별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해 현재 역량과 진학 목표 간의 간극을 정량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별 강점과 보완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개별 맞춤 진학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맞춤형 탐구활동 로드맵 설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3학년 탐구활동 로드맵'을 1인 1안씩 설계하고, 새 학기 준비 기간 동안 구체적인 탐구활동 계획, 자료 조사, 자기 연구계획서 초안 작성까지 선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기 시작 전부터 자기 주도적 진로 탐색과 학습 준비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상시 데이터 기반 점검 및 지원 전략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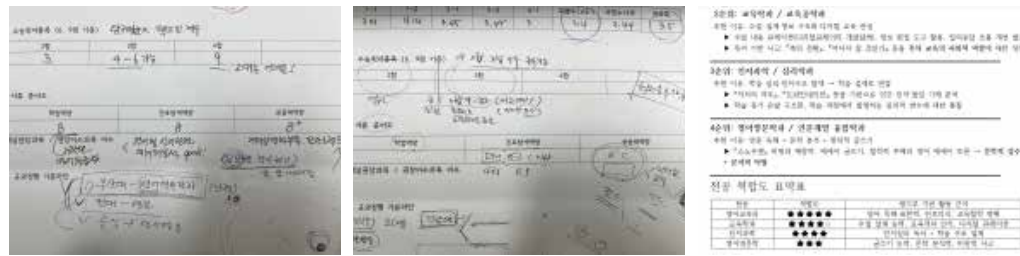
학기 중에는 내신 성적과 월별 모의고사 결과 데이터를 매칭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상시 점검하였고, 필요할 경우 지원 전형과 학과군 대안을 조기에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원점수 향상 시뮬레이터'를 운영하여 학생이 "다음 평가에서 몇 점을 올려야 하는가"를 실감 나게 인지하도록 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증폭하였습니다.

• 모니터링-코칭 반복 구조

평가 이후에는 실제 성취도와 목표 대비 갭을 바탕으로 후속 상담을 반복하며, 학기 전체를 통한 모니터링-코칭 사이클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 생활기록부 데이터화 및 정성적 개선 반영

생활기록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재분류해 데이터화하고, 각 영역별 보완 지점을 짚어주어 정성 평가적 개선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반복 구조를 통한 상향 합격 전략 유지

전체 과정은 '개별 탐구 로드맵→ 월간 지표 점검→ 평가 후 피드백'의 반복 구조를 통해, 학생 개인의 진학 전술이 학기 중 흔들리지 않고 상향 합격 전략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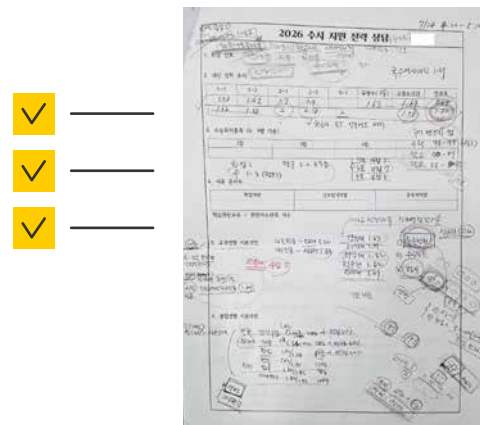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면 학생 개별 맞춤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지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성적, 과목 선택, 진로 흥미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학생에게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과정 중심 상담의 효과

상담 전·후 설문과 면담을 통해 학생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주도적 학습 의지와 진로 결정 확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상향 지원 학생 중 약 10%가 목표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협력적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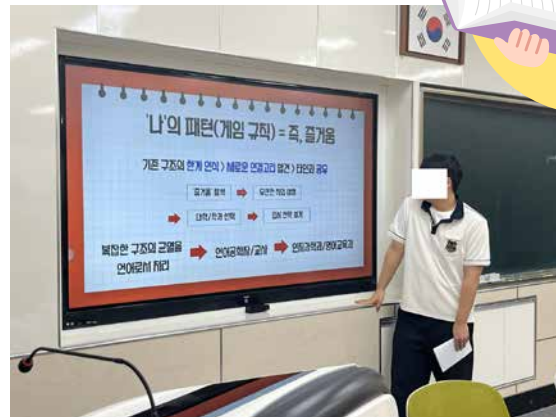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 열린 소통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진학 전략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진학 회의와 사례 공유 회의를 통해 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체험학습, 진로 특강, 모의 진학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폭넓게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역대학과 연계한 꿈 나침반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멘토 교수님과 함께하는 진로 심화 탐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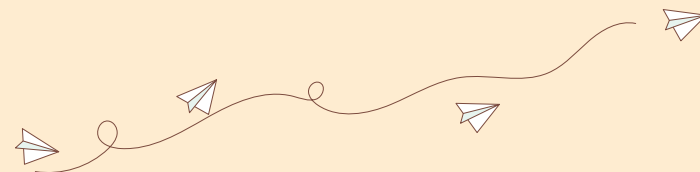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10년간의 진학 지도 경험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담이 학생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상향 지원 전략을 통해 실제 합격률도 향상되었습니다.

한편, 추후 개선사항으로는 진학 지도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대해 학생 맞춤 자료를 자동화·시각화하여 분석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진로 선택 폭을 넓히고, 교사 간 성공 사례와 지도 노하우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 | |
|----------------------------------|---|
| 01
향일고등학교
교사 구종석 |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첫 고3 우당탕탕
진로진학 |
| 02
대구남산고등학교
교사 배대열 | 「만족도 높은 진학 계획 수립」을 위한
느루자람 입시전략컨설팅(입시전설) |
| 03
상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재준 | 공교육의 힘으로 완성하는 자기 주도적
진로 진학 설계 |
| 04
동방고등학교
교사 전혁일 | 教育正道에 기반한 대입 진학 지도 |
| 05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대상 | “학생 중심 맞춤형 진학 설계,
함께 성장하는 경화 진학 시스템” |
| 06
유봉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재완 | 마음을 움직이는 대입 진로 및
진학 지도 |
| 07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교사 조용환 | 우리의 진학, 나의 성장 |
| 08
의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채윤식 | 비주얼씹킹을 활용한 진로 진학 탐색과
논어촌 소규모 학교의 기회 균형 전형에
대한 이해 |
| 09
양정고등학교
교사 최경해 |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진학 A.C.E]를 통한 일반고 2년 연속
다수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 |
| 10
덕암고등학교
교사 최재원 |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이루어 낸
공교육 신뢰성 회복 |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첫 고3 무당탕탕 진로·진학

향일고등학교 교사 구성석

올해 처음 고3 담임을 맡아 지도하게 되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 학교 진학 프로그램, 입시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무사히 한 해를 헤쳐 나갔던 기록을 공유합니다. 처음 고3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다는 마음으로 저의 한 해 진로 진학 일지를 정리합니다.

1. 교사의 준비

고3 담임을 맡아서 교사가 아는 만큼 학생에게 지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교사 개인의 입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했던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학생 파악하기

입시는 결국 숫자와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시 지도를 맡으며, 학생들의 주관적인 희망 사항과 객관적인 합격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정량적 요소의 객관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면접과 대화를 통해 학생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와 '약술형 논술 지원 가능성'을 예상하여 입시 전략의 틀을 잡았습니다.

- **정성적 요소의 정량화 및 시각화:** 학생부종합전형이 주요 전략이 되는 4등급 이내 학생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면접 역량 같은 주관적 요소는 입시가 상대평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타 학생 대비 유불리를 1~3점 척도로 수치화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구글 시트의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 시각화함으로써, 학생의 현재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신	국수영사과	진로	계열	교과 라인	종합 라인	생기부 상태	면접가능성	최저가능성	약술형(국수)	기군 대상	재수 고려
1.85	41145	기계공학	공학	중앙, 경희, 외대	서강, 성균, 한양	3	1	5		o	
1.94	53234	화학생명공학	공학	중앙, 경희, 외대	서강, 성균, 한양	2	1	5		x	
2	32243	의학분야	보건	중앙, 경희, 외대	서강, 성균, 한양	2	2	5		o	
2.04	35146	경영학, ceo	인문	국민, 숭실, 세종	건국, 동국, 홍익	3	3	5		o	
2.82	56255	시각디자인	예체능	상명, 광운, 명지	국민, 숭실, 세종	2	3	7		o	
2.94	44453	생명공학	자연	상명, 광운, 명지	국민, 숭실, 세종	1	2	7		o	
3.33	54255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공학	인천, 경기, 한국공학	항공, 가천, 외대 글로벌	2	2	7	9	o	
3.5	55355	간호학과	보건	용인, 인양, 강남	인천, 경기, 한국공학	2	2	7	10	o	
3.52	68385	생명공학, 생명과학	자연	용인, 인양, 강남	인천, 경기, 한국공학	2	3	8	14	o	
3.55	65374	컴퓨터공학과	자연	용인, 인양, 강남	인천, 경기, 한국공학	1	1	7	11	o	
3.82	74355	건축학과	공학	성균, 한세, 한경	인천, 경기, 한국공학	2	2	7	11	o	
3.94	59375	공면기획/예술경영	예체능	성균, 한세, 한경	인천, 경기, 한국공학	1	3	8	14	o	
3.97	58345	영화과	예체능	성균, 한세, 한경	인천, 경기, 한국공학	1	3	8	13	o	
4.2	67257	영문영어학과, 번역기	인문	성균, 한세, 한경	인천, 경기, 한국공학	3	3	8	13	o	
4.31	78566	통역사, 영어통문학과	인문	충북권	성균, 한세, 한경	2	2	8	15	o	
4.38	65454	기계공학	공학	충북권	성균, 한세, 한경	2	1	12	11	o	
4.49	66446	방송미디어	인문	충북권	성균, 한세, 한경	2	2	9	12	o	

• 연수 듣기

신규 고3 담임으로서 처음에 진로진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연수에 참여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연수를 수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로 놓친 부분을 교차 점검하며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이를 통해 개인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진학 지도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전협 연수

고3부장 워크숍, 수박먹고 대학간다 기본편, 진학단비1, 동국대 워크숍, 진학교사 한마당, 등급별 지원연수, 수박먹고 대학간다 실전편, 면접지도 방안 이해, 농어촌 입시지도 연수

간담회

가천대, 경희대, 아주대, 숭실대, 중앙대, 천안 아산 입시 설명회, 한국공학대, 충북연합 21개 입시 박람회, 안양/성결/한신 연합 설명회, 단국대 (글로벌) 학종 모의평가, 연세대, 명지대, 인천대

• 수시 워크숍(단위 학교 진학 프로그램 운영) 개최

본교에는 고3 담임 교사 혼자만의 판단이 아닌,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입시 전략을 도출하는 '수시 사례분석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시기 및 대상:** 수시 원서 접수가 임박한 2학기 초, 상담 과정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전략 수립에 난항을 겪는 학생(학급당 2명 선정)

- 운영 방식

- 1) 사례 공유: 선정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주요 상담 쟁점(고민 내용)을 공유
- 2) 집단 분석: 3학년 담임 교사, 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모여 다각도로 서류를 검토하고 교차 분석 진행
- 3) 솔루션 도출: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최적의 대학 및 전형에 대한 공동 의견 도출

- 운영 효과

- 1) 교사 측면: 다양한 학생 사례를 접하며 입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혔고, 이는 타 학생 지도 시에도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2) 학생 측면: 담임 선생님 한 분의 의견이 아닌 학교 선생님들의 종합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향 지원만을 고집하던 학생들을 객관적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 현실적인 지원 전략을 수용하게 되어 입시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 진로·진학 상담 과정(나만의 진학 상담 노하우)

신규 고3 담임으로서 겪는 시행착오 속에서, 단순한 입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상담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년간의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저만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합니다.

- 교사의 전문성: 데이터 기반의 사전 준비로 신뢰 형성

진학 상담의 핵심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신뢰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이 불안감을 내려놓고 입시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준비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 전, 구글 시트를 통해 학생의 기초 정보(희망 계열, 내신 및 모의고사 등급,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등)를 미리 파악하고 대교협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에 상담 시간에는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닌, 깊이 있는 전략 논의가 가능했으며, 학생들에게 나를 위해 준비된 선생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전문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위험 관리: 이상과 현실의 조화, 2-2-2 분산 지원 전략

소위 입시 대박보다 중요한 것은 전부 불합격(일명 6광탈)을 방지하여 재수생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는 '2-2-2 전략'을 학기 초부터 강조했습니다.

- 1) 2장(학생/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상향 지원(꿈)
- 2) 2장(학부모/학생): 부모님의 기대와 타협하는 소신 지원(희망)
- 3) 2장(교사): 합격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정/안정 지원(현실)

학생들은 주로 상향 지원 대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임 교사는 교과전형 위주로, 수능 최저 기준이 없거나 충족이 용이한 대학, 그리고 학생이 합격 후에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적정 대학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여 입시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학생의 책임감: 과밀학급의 한계를 넘는 자기주도적 입시 탐구

농어촌 지역 과밀학급 (35명 이상)의 특성상, 교사가 모든 학생의 6개 대학을 찾아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시의 주체는 결국 학생 본인이어야 합니다.

- 1) 프로세스 구축: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대학 탐색 과제를 부여하고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했습니다.
- 2) 상담 원칙: 고민하지 않은 상담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준비가 미흡한 학생은 다시 탐색해 오도록 지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2학기 즈음에는 스스로 자신의 입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주체적인 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2. 학생의 준비

입시의 성패는 결국 학생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이 객관적인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생기부 컨설팅(단위 학교 진학 프로그램 / 종합&면접전형 대상자)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5월경 신청을 받아 1:1 생활기록부 심층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 운영 방식: 교사와 학생이 각자 생활기록부를 분석한 후, 간극을 좁히고 3학년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방식

- 데이터 관리: 구글 시트를 활용해 영역별 핵심 키워드 정리 및 누적 관리→ 추후 면접 예상 질문 추출 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사전 준비

- 역량 분석: 학업·진로·공동체 역량별 강점&약점 파악
- 교육과정: 과목 간 연계성, 연계성, 필수 이수 과목 성적 및 추이 확인
- 목표 설정: 지원 희망 대학의 입결 확인 및 3학년 연계 활동 아이디어 구상

상담

- 상호 브리핑: 학생의 분석 내용과 교사의 분석 결과 비교 (메타인지 강화)
- 전략 수립: 1~2학년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3학년 활동 설계

⇒ 기대 효과: 학생 스스로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3학년 활동으로 보완하는 전략적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기타	자율/진로	능력	진로/진학	진로/진학	진로/진학
학업	수학 3-4 물리 3-1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진로	교과우수 (영어, 통사)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공동체	토론왕-선생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학업특성: 기말고사 성적우수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수업 참여: 적극적 참여, 질문

• 모의고사 분위기 잡기(최저 교과전형 대상자)

일반고 특성상 모의고사 당일의 쉬는 날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강압적인 지시보다는 보상을 통한 긍정적 강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 운영 전략: 7월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 전원 출석 시 단합대회 개최라는 목표를 제시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 성과: 평소 등교가 불성실했던 학생들도 모의고사 당일만큼은 등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급 전체가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험에 임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 교과&종합 모두 애매한 학생

내신과 생활기록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상향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입시 포기를 방지했습니다.

- 약술형 논술(국/수 3~4등급대): 정시 위주(일명 정시파이터)를 희망하며 성적은 낮지만 대학은 잘 가고 싶은 학생들 중 국어와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에게 3월부터 약술형 논술 기출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어차피 정시 공부를 해야 하니, 국어와 수학을 공부하는 겸 EBS 연계율이 높은 약술형 논술을 병행하자고 설득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 취업 연계형 및 특수 학과 발굴

- 1) 군 관련 학과: 남학생들에게 건양대, 단국대 (천안) 해병대군사학과 등 진로가 보장된 학과 정보 제공
- 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바이오 계열이나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가천대, 순천향대 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안내하고 기업 분석 과제 부여

- 3) 특별전형 탐색: 학기 초 종교인, 기회균형, 다자녀, 한부모 전형 등 놓치기 쉬운 자격 요건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별 유리한 전형을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지도
⇒ 성공 사례: 내신 5등급 후반 학생이 기업 탐구와 전형 준비를 통해 순천향대 계약학과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 거둠



3. 입시 프로그램 활용

• 대입정보포털 확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원입니다.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법을 안내했습니다.

- 기초 다지기: 대입정보자료실 및 대입정보 119 활용

학기 초, 입시 용어와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대입정보자료실 탑재 자료를 읽어보도록 지도했습니다.

- 교사를 위한 자료: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대입정보 119>는 신규 고3 담임교사에게도 입시 교과서와 같은 자료입니다. 당해 입시의 주요 특징과 전형별 분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시 전문성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심화 분석: 3개년 입시 결과 추적 분석

단년도 입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안정 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대학별 입시 결과를 조회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1) 분석 기준

- 변동성 확인: 입시 결과 (등급 컷)가 해마다 큰 폭으로 널뛰기하는 대학/학과는 아닌가?
- 안정성 확인: 최근 3년간 나의 성적이 꾸준히 환산점수 70% 컷 이내에 위치하는가?
※ 50% 컷은 추가합격 시작라인, 70% 컷은 추가합격권의 마지노선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라고 지도함

2) 데이터 조회 경로(매뉴얼)

- 대입정보센터→ 대학별 입시정보→ 전형평가기준 및 전년도 결과공개→ 학년도 선택(최근 3개년 각각 조회)→ 대학명 클릭→ 학생부교과전형→ 환산점수 70% 컷 확인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타진하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

가장 방대한 합격 데이터를 보유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과 및 종합 전형의 특성에 맞춘 정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평균 등급 확인을 넘어, 환산점수와 합격자 분포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기본 경로: 대입 상담 프로그램→ 2026 수시상담→ [지역/계열/대학/전형/학과 입력]→ 대학 상세 분석

교과전형 상담 시 사용법

- 환산점수 활용: 첫 화면의 단순 등급 컷(70%)은 오차 범위가 큼. 반드시 상세 화면으로 진입하여 대학별 환산점수를 확인하고, 최근 3개년 입시 결과의 최초합격자 하위권 점수와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여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을 계산함

종합전형 상담 시 사용법

- 상대적 위치 파악: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므로 합격 스펙트럼 내 진입 여부가 중요함
- 필터링 정렬: 합격 사례 등급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지원자 풀 안에서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줌. 등급대가 비슷한 경우 비슷한 생기부가 준비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상대적 위치로 유불리를 판단하도록 지도함

- 기타 팁

- 1) 사례 필터링: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합격 사례가 섞여 있으면 일반고 학생에게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음. 상담 전 해당 고교 유형을 체크 해제하여 일반고 기준 데이터를 정제한 후 상담에 활용함
- 2) 성적 분포 및 위치 확인: [성적분석] 메뉴를 통해 과목 조합별 유불리를 확인하고, [수시사례차트] 기능을 통해 지원하려는 학과 내에서의 대략적인 위치를 산점도로 보여주어 객관성을 확보함

• 농어촌 전형 지도 사례

데이터 표본이 적고 변동성이 큰 농어촌 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등급대별 이원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상위권(중앙대 이상): 농어촌 전형의 환상을 경계하도록 지도함. 상위권은 일반 전형과 합격선 차이가 미미하거나, 모집 인원이 적어 오히려 경쟁률과 합격선이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일반 전형과 병행 지원을 권장함
- 중하위권(3등급 이하): 일반 전형 대비 농어촌 전형의 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임. 적극적으로 농어촌 전형을 활용하되,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 형태의 농어촌 지원을 적극 고려하도록 지도함
- 농어촌 정시: 모의고사 평균 백분위 80%(3등급) 내외라면, 정시 농어촌 전형으로 기대 이상의 대학 진학이 가능함. 이를 근거로 수능 최저 준비를 독려하고 끝까지 수능 학습을 놓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함

• 외국인 전형 지도 사례

학급 내 순수외국인 전형 대상자가 있어, 일반 입시와는 다른 타임라인과 준비 요소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 핵심 평가 요소(TOPIK):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이 합격의 열쇠임. 내신성적이 5~6등급이라도 TOPIK 5~6급을 취득할 경우 상위권 대학 합격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하고, 학기 초(3월)부터 쓰기 평가 등 TOPIK 준비를 독려함
- 자격 요건 정밀 검증: 다문화 가정과 순수 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 등)의 자격 요건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학기 초에 지원 자격을 명확히 확인시킴
- 행정 절차 조기 착수: 재정 보증(잔고 증명), 아포스티유(공증) 등 서류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인지시킴. 순수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 시기가 일반 수시보다 빠른 경우가 많으므로, 1학기 초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하여 임박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관리함

4. 마지막 한마디

처음 고3 담임을 맡으며 옆에서는 다들 체계적으로 진로·진학을 해나가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고3을 맡는 선생님들이 위 사례를 보고 조금이라도 방향성을 잡고 입시를 준비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3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선생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의 미약한 진학·진로 일지가 작게나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도 높은 진학 계획 수립’을 위한 느루자람
입시전략컨설팅(입시전설)**

대구남산고등학교
교사 배대열

1. 진로·진학 지도 운영 목적

-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파악하고 진로 진학 목표에 맞는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 방법(활동 설계 및 교과심화연계 탐구 방안)을 습득
- 본교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교생활기록부 분석과 기재 방향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학생부 작성 및 기재 개선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 제공
- 교육과정, 교과수업(수업활동 및 평가), 교내 프로그램 관련 이수 내역을 기반으로 학생 각자의 개성을 덧입혀 완성도 높은 학교생활기록부 방향을 안내
-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 대비를 위해 명확하게 진로 비전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과·비교과활동 등 다양한 역량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운영 개요(상담 내용 및 운영 과정)

- 대상: 1, 2학년 희망학생 90명
- 기간: 5~6월 중간고사 직후 실시(1학년 신입생의 경우, 첫 정기고사를 실시한 후 고교 진학 이후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입시 전문가인 고3 담임과 함께 미리 학교생활 설계를 진행할 필요성이 높음)
- 장소: 교사-학생 모듈별 희망 컨설팅 장소(교무실, 진학지도실, 3학년 교실 등)
- 컨설팅: 입시 업무 담당 교사(진학지도부장, 3학년 부장 및 3학년 담임교사, 각 학년 입시 업무 유경험 교사, 성적 분석 담당 교사 등)
- 컨설팅 내용
 - 1) 개인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및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사례(줄업생) 안내
 - 2) 개인별 학교생활기록부 구심점 찾기(희망 진로 분야 특성 분석)
 - 3) 스토리가 담긴 나만의 창체 기록 만들기(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
 - 4) 대입정보포털을 활용한 학과정보 탐색, 전년도 입시 결과 및 전형정보 안내
 - 5)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맞춤형 전형 설계 및 지원가능 대학 안내
- 컨설팅 운영 방법
 - 1)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3~4명 매칭 후 모듈별 일정 수립
 - 2) 컨설팅 실시 전, 담당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 참고 분석
 - 3) 방과 후, 휴일을 활용해 학생부종합전형 우수사례 안내 및 컨설팅 실시

3. 운영 특징

- 졸업한 선배들의 학생부종합전형 우수 합격 사례를 정리하여 계열별 참고 자료로 제작함. 특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계기로 탐구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동기유발(녹색), 탐구활동(파랑), 학생의 깨달은 점 or 교사 평가(빨강)로 구분하여 전 교사에게 제공하고, 컨설턴트는 생활기록부 전 영역의 기재 방안을 이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가이드할 수 있음. 컨설팅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공동으로 제작하고 공유하여 학생 간 컨설팅 내용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자료의 일반화와 공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 이와 같은 우수 합격 사례 공유와 진학 전략 수립을 통해 상위 대학의 동일 모집 단위에 지원하여 연이어 합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음(예.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식품영양학과 2년 연속 합격자 배출)

[illegible]

2024년 입시전략컨설팅 학생부 참고 자료(학생부 영역별 기재 사례)	
■ 합격 모집단위 :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부 (5개학기 전과목 1.53)	
■ 참고사항	
· 녹색 : 동기유발(학교교육과정) · 파랑 : 탐구활동 · 빨강 : 학생이 깨달은 점 or 교사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1학년	
자율 활동	(학급특색활동)매주 월요일 7교시에 실시하는 1학년 8반 학급 특색활동 ‘소통을 통한 행복찾기’(2020.04.20.~2020.12.21.)에서 '약사가 말하는 약사(김현익 외 25명)'를 읽고 독서토론 활동을 실시함. 평소 약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책을 읽으면서 약학 관련 용어와 그 뜻을 정리해봄으로써 약학에 대한 지식을 쌓음.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 제약회사, 보건복지부, 약국 인테리어, 제약 마케팅, 메디컬 라이터 등 다양한 직종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향후 진로에

- 특히 교과연계 심화탐구 과정에서 탐구 설계 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특정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과정을 넘버링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함.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사 모두에게 기본 모델을 제시하여 개인별 확장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자등문 프로젝트)수업량 유연화의 일환으로 '자율탐구활동 기반 교과융합형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가함. ①(학교교과과정) 생명과학 I의 세포 주기 단원을 학습하며 ②(탐구동기) 활성산소(ROS)가 세포 사멸 과정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궁금해져 ③(독서활동) '세포사멸 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역할(강상원, 2013)'을 읽고 ④(개별심화탐구) '세포사멸과정과 ROS'를 주제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함. 발표중 ROS가 형성되는 원리를 화학 I에서 배운 산화 환원 반응을 활용하여 전자의 이동을 설명하고, 화학 반응을 설명하며 필기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⑤(탐구 결과) $TNF-\alpha$ 의 자극으로 ROS가 생성되어 다양한 신호 단백질들을 산화시켜 세포사멸이 유도됨을 깨달았으며, ROS가 암세포를 사멸시켜 암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됨. 탐구 후 ROS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 및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진로연계독서)'진로연계 독서 프로그램 'Book積Book積! 부족부족!'에 참가함. ①(학교교육과정) 생명과학 I의 '세포주기'를 학습하며 ②(탐구동기) 세포주기 조절 기능 이상으로 암이 발생함에 대해 관심을 가져 ③(독서활동) 암 치료의 혁신 면역항암제가 온다(찰스 그레이버)'를 읽고 ④(개별심화탐구) 암의 발병기전과 치료법 및 면역항암제의 원리에 대해 협력 탐구를 진행하여 암에 대한 약물치료, 한약 암 치료를 주제로 기존의 항암제에 대해 조사한 후, ⑤(탐구 결과) 세포 독성항암제와 표적 항암제와 달리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자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항암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도출함. 인체의 면역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에 대해 추가 탐구를 진행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으며,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약물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 대학에서 선호하는 교육과정 선택, 즉 과목 이수나 계열 적합성이 높은 탐구활동 설계를 위해 학생 개인별 진로·진학 목표에 맞는 학과를 직접 함께 탐색하여 해당 모집 단위의 교육과정을 안내함. 특히 학생들의 수행평가 주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교과목명을 확인하고, 선호 모집 단위 관련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탐구 주제(수행평가 주제 선택 고민)가 추출될 수 있음을 안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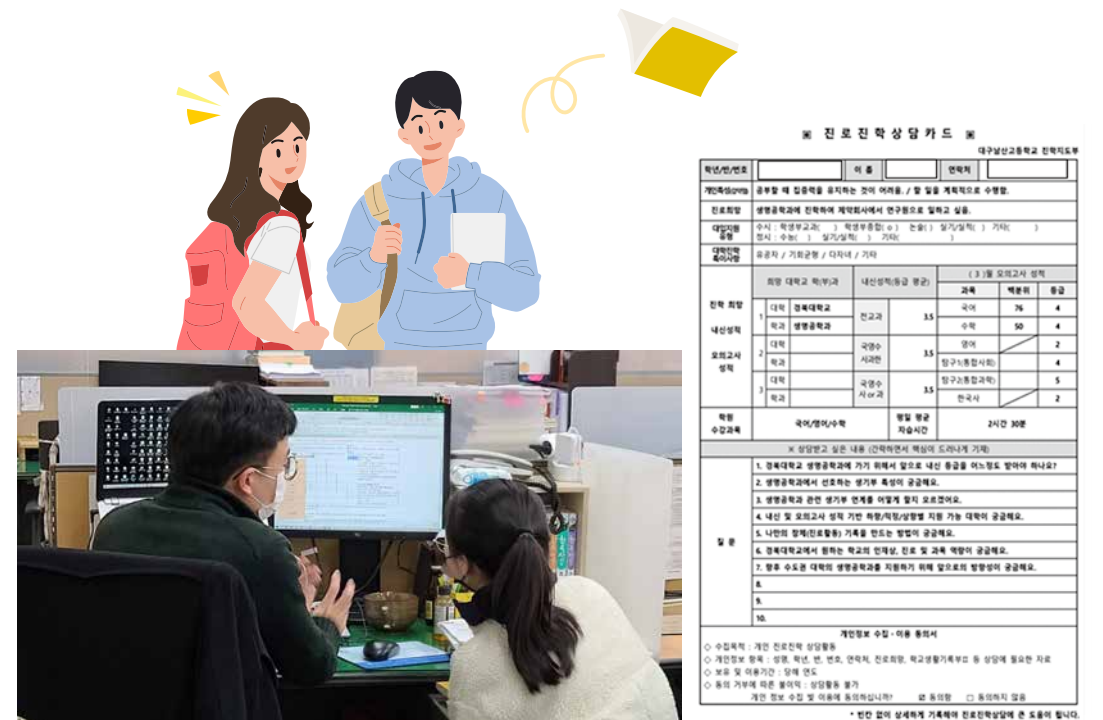
No	개설연도	개설학기	학년	교과구분	개설대학	개설학과	강좌번호	교과목명
1	2025	1학기	1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311-001	식물병리학
2	2025	1학기	2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312-001	식물균병학
3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331-001	보리근종학
4	2025	1학기	1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332-001	근손해(식물의학)
5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333-001	수작병리학(식물위학)
6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338-001	유전학(식물의학)
7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339-001	해충관리학(식물위학)
8	2025	1학기	2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340-001	농업생물통계학
9	2025	1학기	2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341-001	재배학
10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343-001	식물바이러스병관리학
11	2025	1학기	2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위학과	AGBL0427-001	곤충생리학
12	2025	1학기	3	전공	농업생명과학...	식물의학과	AGBL0434-001	농용곤충학실험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 의학과 교육과정 일부 발췌

- 컨설팅은 사전 학생들의 상담 요청 항목을 기반으로 기획되며, 상담 이후에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전 교사가 공유함. 진로·진학 로드맵 구상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부분을 추출하여 상담 자료를 제작하고 전 교사가 다시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illegible]

느루자람 입시전략 컨설팅(입시전설) 학생 사전 질문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공교육의 힘으로 완성하는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상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이재준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저의 진로·진학 지도 목표는 공교육의 틀 안에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역량'을 극대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직생활 중 15년 이상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 및 고3 부장, 진로진학부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경북진학지원단과 대교협에서 상담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입의 최전선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 입시의 방향을 못 잡고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공교육 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경북에는 농산어촌 소외 지역이 많아서,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교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욱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입시 정보 전달만으로는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교사가 특정 진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진로·진학 지도는 소수의 입시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있는 학교에는 신규 교사 및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기에, 학생 진로·진학 지도에 앞서 교사의 진로·진학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매년 3월이 되면 '진로·진학 교사 동아리'를 조직해 여러 선생님들과 대입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학기 초에는 여러 선생님들께 올해 변화되는 대입 특징, 학생 성적 자료 분석 방법, 상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했고, 매달 모임 자리를 만들어 대입에 대한 핵심 정보들을 공유하고 생활기록부 기록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모임은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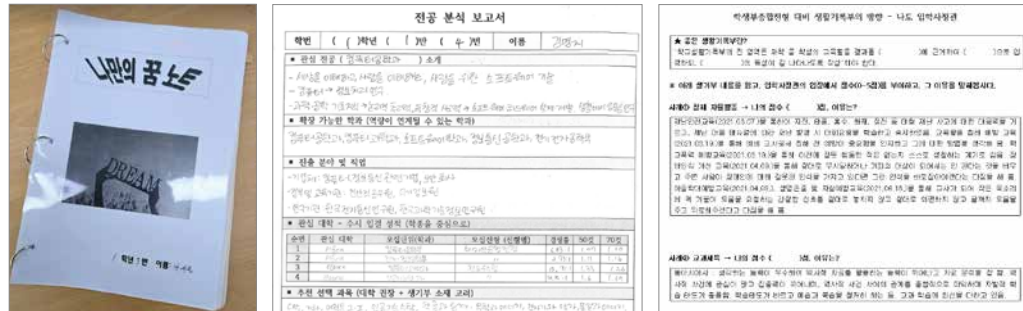


저는 진로진학상담 부장으로서 학생, 학부모 대상 대입 특강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1학년 '진로와 직업' 과목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진로 역량 강화는 일회성 특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 학기 이상의 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초 체력을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신 대입 정보 제공을 위해, 교과서에서 벗어나 직접 교재를 제작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누적할 수 있는 진로 포트폴리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성이 우수하며 공신력 있는 입시 정보 플랫폼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는 1학년 전교생이 어디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직업정보', '학과정보' 메뉴를 통해 관심 진로를 3개 이상 탐색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메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신 및 수능 목표를 세우도록 안내했습니다. '대학정보' 메뉴를 통해서도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다운 받아 분석해 보았고, 입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관심 대학의 정보를 탐색하며 학생부종합전형 및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어디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대입 상담' 메뉴도 안내하고 효과적인 질문 글 작성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진로 수업을 진행할 때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디가 사이트를 비롯한 각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스스로 정보를 해석,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만들 때도 이러한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게 발문을 구성하였고, 언제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태블릿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학생생활기록부 평가 기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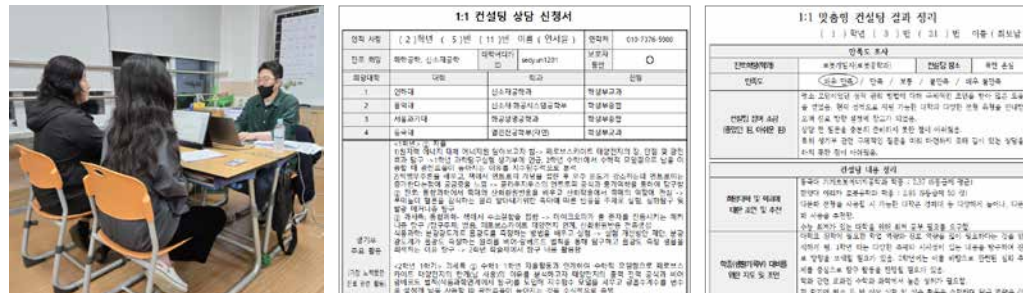


저는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에 제공된 학교생활기록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학습지로 제작하고, 학생이 직접 해당 내용을 분석,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학생 스스로 좋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입시 전문가와의 1:1 대입 상담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기 초에 진행되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 외에,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상담 신청을 받고,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대입 상담을 진행했으며, 매년 300시간 이상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매 학기마다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선생님들을 학교에 초청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컨설팅의 결과가 본교 선생님들에게도 잘 전달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컨설팅 전에는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컨설팅 이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컨설팅 내용을 정리하게 한 후, 해당 내용을 본교 선생님들과 공유함으로써 컨설팅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저는 매년 2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비한 '개인별 상담 자료'를 만들어 3학년 전교생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자신의 내신이 해당 대학 기준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 환산 내신이 유리한 건지, 입결 기준으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의 '대학별 석차 연명부' 기능을 활용하여 대학별로 교과전형 환산 내신을 산출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환산 내신과 전교 석차를 엑셀로 정리하고, 해당 대학의 전년도 교과 입결도 입력하여, 환산 내신의 전교 석차가 유리하게 산출되거나 전년도 입결 기준 합격 가능성이 있으면 음영으로 색상 표시가 나도록 엑셀의 조건부 서식을 적용했습니다.

15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환산 내신을 산출하고 전년도 입결을 찾아 넣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가천대 지역균형전형의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지원선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통해 본교에서는 11명이 해당 전형으로 지원해 10명이 1단계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오랜 시간 고3 입시 지도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3 담임의 경우 한 학기만에 질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성해야 하지만, 학생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상담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내성적인 학생들의 경우, 상담만으로는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고자,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되는 2차 상담에서는 '너를 알고 싶어'라는 질문지를 활용했습니다.



[illegible]

학생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으로 미리 주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글 워드로 타이핑을 쳐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처럼 사고의 제한을 최대한 없앴습니다. 분량, 맞춤법 제한 없이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칭찬하고 싶은 친구에 대한 질문도 필수 문항으로 넣어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합된 답변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좋은 글감이 되었고, 학생과의 상담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MEMO





‘教育正道’에 기반한 대입 진학 지도

동방고등학교
교사 전혁일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학습의 습관화를 통한 효능감 증진
- 객관화된 대입 상담을 통한 정직하며 공정한 그리고 효율적인 대입 진학
-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진학 지도 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참여의식 제고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학습의 습관화를 통한 효능감 증진

진학지원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인 ‘4C(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reativity(창의성), Communication(의사소통 능력), Collaboration(협업 능력))’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활동 및 진로활동의 자기주도적 설계의 방향을 학년별로 안내하고 추진하여 내실 있는 창체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인증제인 ‘습.습.(習.習.)’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인증받아 자율활동에 기재함으로써 자기주도학습에 따른 자아효능감을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수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머뭇대던 학생들은 이내 경쟁이 붙기 시작하니 더 책상에 앉으려는 의욕이 불타 토요일에도 참석을 자원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객관화된 대입 상담을 통한 정직하며 공정한 그리고 효율적인 대입 진학

2018년~2020년, 2023년~현재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입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대교협 대입 상담 교사단을 겸직하여 대입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총 768건, 2025학년도 341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시청 등 기관을 통해 대면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이나 사교육 기관을 통해 입시 코칭을 받고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를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 및 고교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교내의 경우)을 통해 입시 상담을 진행하면 입시의 본질과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각성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접속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언컨대, 어디가만큼 정직하고 공정한 대입 상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담자의 욕구와 합격선 간의 괴리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상담하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입시 지도가 사교육 기관에서 배부한 배치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좌표 찍기에 급급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전형의 각양각색의 결과가 분포하므로 진학 담당 교원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반에서 ○등은 해야 ○○대 간다”, “x.xx등급 못 맞으면 xx대 못 간다” 등의 추상적이면서도 무책임한 진학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되니 진학 지도에 있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인 교육과정 (단위: 원/시간)					일반학원		
번호	구분	강의명	주제	강사명	학원명	학원주주	
34810	초등교육	영어교과	영어 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1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1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1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2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4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2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5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2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6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2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7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2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8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3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9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3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0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3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3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2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3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3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4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4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4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5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4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6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4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7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4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8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5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19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5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0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5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5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2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5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3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6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4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6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5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6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6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6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7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6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8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7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29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7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0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7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7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2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7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3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8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4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8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5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8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6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8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7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8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8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90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39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92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40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94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41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96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42학년	김민정	2015-08-11	2015-08-11	400
34898	초등교육	수학교과	수학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온라인 상담 목록

[illegible]

온라인 상담 사례

-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진학 지도 책임자로서의 역량 강화**

2025학년도는 진학지원부장 첫해로 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인 겨울방학부터 바쁘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입학생은 202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그리고 변경된 수능 체제 등 삼중고를 안고 고등학교에 입성했으며, 고3은 증가한 수험생, 사탐런 이슈, 의대 정원 복귀 등 역시 삼중고를 안고 입시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학년 시작 전, 대입의 방향키를 잡기 위해 대학 주관 설명회(서울대학교 대입정책포럼, 경기대, 중앙대, 충남대, 성균관대 등) 및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서류 평가(한국외대, 동국대, 인하대, 중앙대, 경북대 등)에 참여하여 입시의 동향을 살폈고, 2028 대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대교협 주관 연수(하계연수, 특별전형연수)와 교육청 주관 연수를 비롯하여 교내에서도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3들에게는 이미 작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입시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한 바 있었지만, 9월 수시모집과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까지 피부에 와닿기 어렵다고 판단해 저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3학년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수시전형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학기 초, 1차 담임 면담 후 2차 상담을 맡으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에 그들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아내어 권유한 결과 연세대(최종)와 서울시립대(1차) 등에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상담과 설명회 참석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곧 일반고 고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본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전문적인 진학 지도 및 교원의 전문성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이에 수능 직후 본교 주관 입학 설명회와 인근 중학교 방문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고입·대입 정보와 관련한 특강 등을 통해 제 교직원생활에 깊은 인상을 남긴 한 해가 되었습니다.

[illegible]

- 지역사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참여의식 제고

교육청 주관 대입 상담을 비롯하여 대입진학정보지(CAN: College Admission News) 제작, 역량 강화 세미나, 대입상담 박람회 및 대전광역시청 주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대입 진학의 역량을 높이고 상담교사로서 지역사회의 대입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3 담임교사 및 저경력 교사 대상 ‘찾아가는 대입 어깨동무’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수시·정시 전형 합격 사례 분석 방법을 소그룹 형태로 지도하여 관내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전후 본교와 관내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생활기록부 기반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수험생들이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여 면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독려하였으며, 특히 대입지원단 내 대입 지도자료 개발연구회(행복한 삼인행)에서 인문계열 제시문 면접 예비 문항을 개발한 점은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 중간고사-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촉박한 입시 시기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 전공 도서, 교과서, 논문, 언론 기사 등을 빼곡하게 쌓아 놓고 문항을 개발해 초고를 다듬고 마침내 책자로 배포할 때 ‘공교육은 강하며 선하다’라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illegible]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대학별로 요구하는 조건과 특징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정확하게 지도해야 한다. 대입 시행계획, 수시·정시모집 요강, 언론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적재적소에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연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대학이 뽑고 싶은 사람 뽑나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의 서류평가에 참여하여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논술·논어촌·기회균형전형 등 특징 있는 전형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알려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 제자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타성에 젖지 말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教育正道’의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소양을 신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입 및 진학 지도 연수에 시간을 아끼워하지 말고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대입지원단을 통해 상담 프로그램의 본질을 배우고 대교협 상담교사단을 통해 입시의 본질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상된 역량을 지속가능한 공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자기 연찬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교협 온라인 상담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화했으나 전화 상담에 아직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기에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더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해 본 제시문 면접 문항 개발을 비롯한 면접전형 역량과 더불어 논술전형 지도 역량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MEMO





학생 중심 맞춤형 진학 설계, 함께 성장하는 경화 진학 시스템

경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정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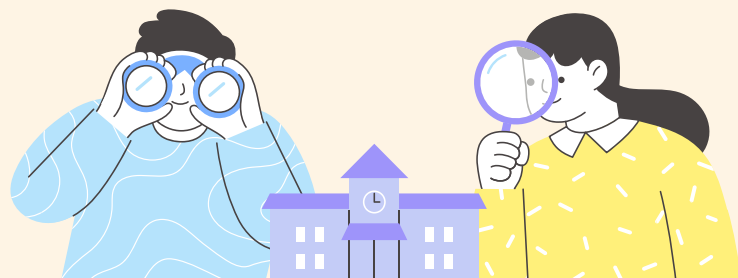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최근 대학입시 제도의 다변화와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에 따라, 성적 중심의 진학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 비교과 활동, 진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학 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를 위해 데이터 분석, 교사 협업 시스템, 학부모 실시간 소통 체계를 결합한 통합형 진학 지도를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진학 만족도와 학교의 상담 전문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 학생 개별 특성과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대입 전략 설계 체계 확립, 2) 교사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전문적 상담 역량 강화, 3) 학부모 참여 기반의 신뢰 중심 상담 구조 구축, 4)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학 지도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로 본교는 고3 담임만이 아닌 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맞춤형 진학 설계-협업-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전 교사 참여형 방학 진학 컨설팅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담임교사와 진학 담당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별 생활기록부 전 항목을 점검하여 학생의 성적 변화, 비교과 활동, 진로 희망 학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학생별 맞춤 진학 설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생활기록부 기술의 방향성과 비교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교과 성취도 정량적인 수치를 넘어 학생의 강점이 드러나는 진학 설계를 지향하였습니다. 이후 학기 중에는 1달 1인 1상담 체계를 유지하며, 매일 상담 기록을 갱신했으며, 상담 내용도 학생의 학업 태도, 모의고사 성적, 생활기록부 보완 방향, 대학별 전략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상담 코칭

진로 통합 코칭 프로그램 코칭 기록지

교과	교과	교과	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예술	직업
정보	건강	안전	진로

1. 학업역량 35%

2. 진로역량 40%

생활기록부 점검

• 데이터 기반 상담 체계 구축

학교 자체 모의고사 분석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여 최근 3개년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였습니다. 장점으로 전국 평균, 본교 평균, 학생 개인 성적을 다층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학업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교협 프로그램, 썬진학과 서울대학교 아로리 등을 적극 활용했고, 학생별 수시 지원 가능 대학, 합불 예측 점수, 수능 최저 충족률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학 지도를 실현하였습니다.

대교협에서 개인적으로 선호했던 부분은 수시지만 타 학교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본교 학생과 비교 가능하였으며 관심대학 출력 가능, 상담 메모 가능, 자사고 학생의 등급대 유추 등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믿음이 향상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1, 2학년 학생들도 대교협 프로그램에 성적을 입력하여 교사들과 성적 및 생활기록부 데이터를 공유하여 조기 진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년 간 연계 상담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분석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예술	직업	진로
전체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본교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자체 프로그램

서울대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예술	직업	진로
전체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본교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서울대학교 아로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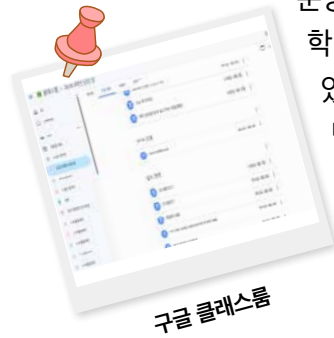
대교협

구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예술	직업	진로
전체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본교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82.5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

● 교사 협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본교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개설하여 교사 전용 진학 자료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교사는 입시 일정, 대학별 평가 요소, 취업률, 학과별 특징, 생활기록부 작성 팁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매월 4주 차 수요일에는 3학년 담임과 희망교사 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시제도 변화, 교과전형 서류 분석, 생활기록부 종합 평가 연습, 학생 사례별 종합점수 산출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간 크로스 면접 체계를 도입하여 타 학급 교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실전형 모의 면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면접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사들은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다각도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교사 협의회



모의 면접

● 학부모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상담 운영

학교와 가정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학부모 전원을 네이버 밴드에 초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 대학 정보, 진로 관련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댓글 및 채팅 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질의응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성장 다이어리 ○월호'를 제작하여 3학년 주요 일정, 진로 프로그램, 학생 성장 사례를 담은 가정 통신문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의 작은 노력에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진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네이버 밴드 운영



가정 통신문

● 수준별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운영

상위권 학생을 위한 '등용실'을 운영하여 학습 집중 환경을 조성하고 프린트, 학용품, 다과 등을 지원하여 최적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대 진학 희망 학생을 위해서는 '꿈꾸GO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적 환산 점수를 기반으로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현실적인 진학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대학 연계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진로 탐색의 폭을 확장하고, 해당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연계 기록함으로써 학생의 진로활동 실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꿈꾸GO 프로그램



등용실



진로체험 프로그램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데이터 기반 분석의 객관성 확보

교사 개인의 경험적 판단과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3개년 분석 시스템(엑셀)과 공신력 있는 대외 프로그램(대교협, 썬진학, 꿈꾸GO)을 병행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사 협업 구조의 실질적 운영

교사들 간 형식적인 회기가 아닌 ‘공동 설계형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학생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서류평가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진학 지도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협의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신규 교사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신속히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 가정-학교-학생 삼자 연계의 중요성

학부모 밴드와 성장 다이어리를 통해 ‘공개적 상담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가정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학생의 목표 의식과 학습 참여도가 함께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또한 진학 파트너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학생 수준별 맞춤형 지도 체계

상위권, 중위권, 전문대 희망 학생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담 방식, 자료, 면접 대비를 차별화하여 학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진학 지도 모델’을 실현하였습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 운영 성과

학생별 맞춤형 진학 로드맵 완성으로 진로 방향이 명확해지고, 진학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교사 간 협업 구조 정착으로 입시 정보 접근성 및 상담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학부모 참여율 증가로 학교 진학 지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고, 상·중·하위권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차별화된 상담으로 학교 전체 진학 분위기를 제고하였습니다.

• 느낀 점

진학지도는 개별 교사의 역량을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의 협력과 데이터 공유가 핵심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과 실제 학생 생활기록부의 결합이 진학의 방향성을 구체화함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학생의 진로 성장이 배가 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추후 개선 방향

교사 협의회 및 상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학교 진로·진학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예정입니다. 1, 2학년 단계부터 본 시스템을 적용하여 조기 진로 설계-진학 연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학 전담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전문성 공유형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3개 학년 동안 지속가능한 진학 지도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대교협 프로그램에 1학년 5등급제로 환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환산되면 1학년 때부터 누적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진학, 진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입 진로 및 진학 지도

유봉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재완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00대 몇 명 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진로 진학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고3 담임을 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순위 대학과 학과에 가깝게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상담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도 교사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후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보다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고3 담임을 9년째 맡고 있는 저는 학기 초에 일단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 첫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가능성과 정시 합격 가능성을 살펴보고 상담 때 정시 입시 결과에 대한 안내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프로그램에 제시된 많은 학생부종합전형 불합격 사례들은 합격자 내신성적 평균만을 고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년 A대학의 B학과는 절대 갈 수 없어’라는 단정적 표현보다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보자’, ‘이 대학의 입시 결과는 이렇고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받았을 때 3개년 평균이 이 정도가 나와. 하지만 열심히 해서 올려보자’와 같은 따뜻한 말로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을 보면 ‘이 학생은 어느 대학을 보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칭찬을 통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진로·진학 지도를 통해 학습 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하고 많은 학생들이 교내 자기 주도적 학습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정시 입시 결과를 찾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전형 정보- 대학명 입력-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수능 위주 전형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정시 입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저는 고3 담임을 맡으며 고3 수업은 없고 고1 수업만 18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1 수업도 충실히 하고, 내가 담임을 맡고 있는 3-7반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해야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고1 수업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야’ 등의 다짐을 하며 계속 달려왔습니다. 3월의 경우, 학습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침 조회시간은 8시 20분이지만 학습 분위기도 조성하고 담임반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8시 혹은 8시 5분쯤에 교실로 가서 독서하며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모든 합격자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고3 담임을 하면서 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도권 대학을 많이 희망했습니다. 8~9월쯤이면 이전보다 더 섬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작년 경쟁률과 모집인원, 프로그램에 있는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A대학 B학과의 작년 모집인원이 20명이었고 경쟁률이 20대 1이었다면 400명이 지원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합격자 사례는 10건, 불합격자 사례는 200건이 있는데, 자신의 내신 성적보다 성적이 높는데 떨어진 사례가 30건이 있다면 실제로는 자신의 내신성적보다 성적이 높는데 떨어진 사례가 60건 정도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모집인원 20명의 3배에 해당하는 60명의 학생들이 자신보다 성적이 높았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대체로 높다는 점, 해마다 달라지는 경쟁률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데이터로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학생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은 곳을 접수하게 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결국 학생들은 경쟁률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나치게 경쟁률을 강조하다 보면 'A대학의 B학과는 올해 경쟁률이 낮으니깐, 합격하겠지'라고 학생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예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A대학의 B학과가 보여준 최소 3개년 입시 결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C학과는 경쟁률이 낮더라도 최근 3개년간 입시 결과가 높았어',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D학과가 컷이 낮았지만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합격자 내신성적이 높았어. 따라서 상향 지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등의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컷만 보고 지원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대입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모집인원, 경쟁률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여부 및 변동에 대해 친절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불합격한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집인원이 많고 경쟁률이 낮고 수능 최저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합격자 내신성적 컷이 낮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능을 강조하면서도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고3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수시 원서 접수 시 중요한 상담 기준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정시 입시 결과 자료를 등급이 아닌 백분위로 자세하게 언급하며 객관적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진로·진학 상담을 하면서 나름의 원칙을 정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 **첫째, 진학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상담이다.**

일관된 상담을 위해서는 다른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이며 스스로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단정적으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입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요강의 경우 작년과 달라진 모집인원의 변화,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변화, 알 수 없는 경쟁률, 재학생들의 고3 6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 면접을 잘할 수 있는 과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학과 2~3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학생들에게 잘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의 상담이 100퍼센트 맞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 100% 안정 지원은 없다는 점 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둘째, 학생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가능성을 키워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생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을 쓰는 방법, 논술전형을 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을 경우에는 면접을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들에게 쓰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진학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에게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의 경우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도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더라도 수시전형은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6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내신성적이 상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진학하고자 하는 과와 관련된 과목의 점수도 중요하다는 점, 대부분 대학들이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 논술 등의 경우 선택권이 있다는 점, 경쟁률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상담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켜봐 온 담임 선생님의 상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등에 대한 언급도 필요합니다.

● **셋째, 진정으로 학생 입장에서 상담이 필요하다.**

고3 담임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진학 상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학생 입장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 대학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객관적인 상담과 희망적인 상담 중 무엇을 원하는지 학생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주면서도 학생들에게 '상담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등의 말로 학생들과 소통했습니다.

고3 담임은 1년을 잘 끌어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8월 31일은 수시모집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과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소수의 학생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상담 프로그램에는 기회균형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등에 대한 정보가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자와 불합격자 사례 등을 잘 살펴보고 원서를 접수할 수도 있는 대학들을 미리 짚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원서 접수 당일에 경쟁률을 보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접수 완료 이후에 경쟁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점도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이 적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 성적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고3 담임을 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불합격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 쉽지 않음을 상담 때 종종 언급하였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대학 측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작년에 한 학생은 고2 때 수학 성적이 9등급이었는데 서울권 대학의 뷰티산업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측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3학년 때 수학 성적을 올리면 학생부종합전형으로도 합격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말하길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면 다른 과목들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볼 수 있겠죠”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결국 고3 때 수학 등급을 5등급까지 올렸고 결국 원하던 대학과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리 성적이 좋고 고3 때 정치와 법 과목에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지만 지리 성적을 많이 반영해 주는 A대학 B학과에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B학과는 지리학과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법 과목 성적은 낮지만, 법과 행정 관련 교내 활동을 수행한 학생으로, 경쟁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서울권 여대의 법학과 1단계를 통과하였습니다. 나름 분석해 본 결과 경쟁률이 5대 1 정도였고 모집인원이 많아서 1단계를 합격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독어독문학과를 희망하는데, 영어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영어 등급은 3등급이지만 독어독문학과 관련 탐구활동이 많았고 공동 교육과정으로 독일어를 수강했다는 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성적이 상승곡선을 그렸다는 점을 참고하여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면 상담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고1 수업만 18시간이었지만 수시 원서 접수 기간 마지막 날에는 경쟁률을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자 교장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수업 출석 확인 및 건강 확인, 과제 제시를 한 후 바로 상담에 임했습니다. 공강 시간과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는 상담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2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수시 원서 접수 기간까지 거의 매일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1, 2 수업이 많은 경우 최대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가 집중해야 할 일, 학생이 찾아봐야 하는 일 등에 대해 학생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담에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신 계산 방법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태도로 대학별 점수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환산된 성적이 많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봐야 하고, 고3 담임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서로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 측에 전화로 문의하면 대략 몇 점 정도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해 주기도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상위권 학생, 진로가 고민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A대학의 B학과를 원하는데 B학과가 성적이 안 될 경우, ‘B학과는 어려울 것 같아’로 상담을 끝내기보다는 ‘B학과 말고 C학과는 선생님이 보기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OO이의 흥미와 적성에도 잘 맞을 것 같아’ 등과 같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에게 대학과 학과를 찾아오라는 언급보다는 교사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시의 경우 직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고 이를 대학 자체 점수로 환산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입 합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고 직접 고민하고 선생님들과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면접 대비의 경우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과목별 교과서 파일을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후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시문 면접 예상 문제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입 진로 및 진학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했던 가장 많은 질문은 ‘선생님! 내신성적이 나빠서 저는 수시모집 말고 정시모집으로 갈 거예요. 내신 공부는 안 해도 되죠?’였습니다. 수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 6장 지원하고, 정시의 경우 4년제 대학에 3장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시의 경우 상향, 적정, 안정으로 원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상향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카드는 1장입니다. 하지만 수시의 경우 더 많은 대학에 상향 카드로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수능 점수에 따라 면접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신 공부가 결국 수능 공부이고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중 정시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둘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저는 올해로 고3 담임만 9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마다 다양한 데이터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에서 대학 성적을 산출할 때 아주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에 큰 지장은 없었고 앞으로도 상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개선 사항과 관련된 의견은 딱히 없지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에서 수시와 정시 입시 결과를 학생과 교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추가적인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단순히 성적에 맞춰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입 정보도 주고 소통하고 독려하는 일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만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 2학기에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도 쓰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EMO





우리의 진학, 나의 성장



인천포스코고등학교
교사 조용환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 본교는 학교의 교육력 및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 주 전형으로 선정했기에 이에 맞춰 교과 및 학급 운영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맞춰 진학 방향 설정
- 정량적 정보에 의존해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지도하기보다는 정량적 정보와 정성적 정보를 종합한 후 학생의 의견에 따라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학 방향 설정
- 당사자가 뚜렷한 진로·진학 방향이 없는 경우, 대학의 학사 제도와 진로 탐색 용이성을 고민해 지도 방향 설정
- 당사자의 진학이 후배들과 학교의 미래 진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적성과 진로 방향에 맞는 모집 단위 선정 및 중도 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학교 및 전공을 선정하는 방향 설정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막연한 진로의 구체화

본교의 경우 1학년 재학 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인의 명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STP-10Academ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탐색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부터 가져온 진로 희망이나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진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진로 방향성이 막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거나 방향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도를 교과 수업이나 학생 상담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생활기록부 속 부족분 채우기

학생들이 막연한 희망으로 진로·진학 방향을 꾸미는 경우 전공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교 생활 중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영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마케팅에 대한 관심만을 표시했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영상 제작에만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학생들과 함께 희망 대학,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학과의 인재상, 교육과정 등을 함께 탐색하며 해당 전공의 지향점과 교육 목표를 안내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추가 활동 등을 제안하여 수행하였습니다(경영학 학생의 경우 회계, 인사,



글로벌 경영 등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게 지도하고,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학생의 경우 미디어 효과 이론, 저널리즘 등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게 지도함).

• 다양한 학과의 도전

본교의 경우 교육과정 설계가 범위와 계열성을 적절히 타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슷한 학문 범주에 포함된 경우 다양한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영화학이 주력인 학생에게 콘텐츠학을 추천하거나 행정학이 주력인 학생에게 법학을 추천하는 등 학생이 하나의 전공에 집중해 보지 못했던 유사 전공들을 추천하며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상담을 진행했고, 이에 맞춰 진학 지도를 하였습니다.

• 모의평가로 수시 지원선 결정

학생 상담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6월 모의평가 후 학부모 상담, 9월 모의평가 후 수시모집 지원 단위를 결정하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예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수시 지원하지 않겠다는 학생들도 수학능력시험 대비 및 기초학력 향상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도 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를 동등한 선에서 놓고 볼 수 없기에 6월, 9월 모의평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였고, 진학 당사자들이 이해가능한 수시 지원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유사 데이터 찾기

본교의 경우 학교 유형이 광역형 자율형 사립고인 관계로 동일 유형 학교의 입시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개하는 합격자(또는 등록자) 석차 등급의 70% 자료로는 본교 학생들의 지원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과년도 지원자들의 합불 자료를 보며 본교와 유사한 형태인 학교들의 지원선을 찾아 지원 가능선을 판단하였습니다.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대학별 평가 요소 이해

본교에서는 연 30회 정도의 대학 간담회를 운영(대면, 비대면 포함. 교육청 단위 행사 제외)하고 있습니다. 3년간 간담회를 통해 얻은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기본 평가 항목인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해석하는 방식이 학교마다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진로 역량의 일부인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을 협의의 전공 적합성으로 해석하는 학교, 광의의 계열 적합성으로 해석하는 학교 등 다양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학생들의 최선호 대학의 경우, 계열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 및 관심사만 충족한다면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서울-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정교한 전공 적합성이 교과 및 비교과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공 가이드북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학교들 또는 서울-수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학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량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성적인 기록에서 전공 적합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

학교 유형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본교의 입시대장을 참고 자료로 삼아 학생들의 예상 지원 학교를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본교의 경우 인문사회 계열 진로를 가진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선배들의 충분한 지원 사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타 학교 사례를 점검하였습니다. 대교협 대입 상담 프로그램의 수시 메뉴에서 대학, 전형, 학과를 검색해 합불 사례를 조회하면 학생들의 합불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례 학생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학생의 수시 지원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전 연도 졸업생에 한함). 이를 참고하면 타 학교에서 비슷한 성적대에 유사한 진로·진학 방향성을 가진 학생에게 어떠한 학교를 추천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록이 입시 지도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으나 교사와 학생이 생각했던 대학과 학과 말고도 참신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기에 이를 참고해 학생의 진학 지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Daegyoheup University Admission Counseling Program interface. It shows a search result for a student named Kim Seonhyun (김선현), who is a 2024 high school senior. The interface includes various tabs for searching by university, major, and admission type. The main table lists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university name, admission type, and search criteria. The table shows results for Kim Seonhyun, including her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 type (General Admission), and search criteria (High School Senior, 2024 High School Senior, 2024 High School Senior). The table also includes a section for 'Search Results' with columns for university name, admission type, and search criteria. The table shows results for Kim Seonhyun, including her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mission type (General Admission), and search criteria (High School Senior, 2024 High School Senior, 2024 High School Senior).

학생의 지원 현황 알아보기 사례(작년 지도 학생을 예시로 사용)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과 타 전형의 조화

본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도 면접형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의 축소, 생활기록부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주력 전형에서 한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 비율에서는 손해일 수 있으나 총원 확률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이나 석차등급 계산이 본교에 유리한 학교의 학생부교과전형(예. 한국외국어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등으로 전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과 노고를 줄이고 총원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을 확보한 후에 수능 최저 등급이 제시된 논술 전형까지 참여를 유도하며 전형 다양화에 힘써 학생들이 가진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학교에서 기회를 주신 덕분에 2023학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덕분에 입시 흐름의 변화, 대학별 특색 등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졌고, 해마다 진행되는 대학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8학년도 대입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학년 담임을 하기 이전에는 학생들의 낙방 결과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시킨 학생들이 면접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낙방하는 것을 보며 대학이 입맛대로 선발해 간다는 오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방향성과 우리의 대응 방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상호 간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고등학교의 교육적 변화가 수반된다면 진학이라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소해 본교의 좋은 학생을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시킬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제가 많습니다. 3년 연속 3학년 담임을 수행했으나 자연계 학생들을 지도한 경우는 올해가 유일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물리학 교과 과정을 이수한 친구들이라 진학 지도의 폭이나 학과에 대한 이해가 협소했습니다. 추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학, 생명과학 교과를 주로 이수한 친구들이 그들의 계열 적합성을 살려 진학할 수 있는 데 이바지하는 진학 지도를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수행하는 본교에서 3학년 담임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누적 기록되는 생활기록부에서 3학년 담임이 미치는 영향은 잘 만들어진 작품에 점을 찍는 일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점이라도 잘 찍는다면 학생들이 쌓아온 기록이 조금 더 빛날 수 있을 것이란 작은 믿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진학 지도의 전문성을 키워 3학년 담임교사로서, 2학년 때부터 키워 온 학생의 역량과 진로 탐색 과정들을 최대한 빛내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비주얼씽킹을 활용한 진로·진학 탐색과 놓어준 소규모 학교의 기회균형전형에 대한 이해

의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채윤식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 진로는 나의 꿈을 Job는 것이다.
- NIE 활동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 키우기
- 모든 교과에서 책 1권 이상 읽고 관련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반영하기
-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내신과 수능의 부족한 점 극복하기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10년 후 나의 모습을 비주얼씽킹으로 작성하고 발표하기
 - '진로는 나의 꿈을 Job는 것이다'라는 진로·진학 상담 지도 목표를 세움. 진(進)은 학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로(路)는 학생의 장래 꿈과 학과(전공)의 선택 과정임을 제시함
 - 학기 초 진로 표준화 심리검사를 전 학년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진학 개별 상담을 함. 특히 1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표준화 심리검사 내용,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직업 정보, 대학 정보, 학과 정보, 전형 정보 등을 검색하여 자신의 진로·진학 자료를 탐색하도록 안내함
 - 메이저 맵 사이트 및 희망 대학과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의 진로·진학 희망 학과를 검색하여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게 하고, 관심 학과(전공)와 관련한 추천 도서를 검색하여 도서명과 저자를 적도록 지도함
 - 미래 유망 직업에 관한 신문 기사를 찾아 정리 분석함.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3D프린트 등과 관련한 미래 직업에 대해 알아봄. 또한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전쟁과 테러,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소득 불평등 문제 등 우리나라와 인류가 당면한 현실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교과서의 핵심 내용과 연관시켜 해결하고 노력함
 - '10년 후 나의 모습'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thinking)을 시각화(visual)화하고, A3 도화지에 그림과 글로 작성하여 발표하며 친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도화지와 12색 색연필을 진로 체험비로 구입해 학생 개인에게 배분하고 미래 자신의 꿈과 모습을 스케치하고 작성한 후 발표함으로써 진로·진학을 설계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함



음악 교사가 꿈인 학생의 비주얼씽킹



디자이너가 꿈인 학생의 비주얼씽킹

• 신문 기사 스크랩 및 직업신문 만들기



신문 기사 스크랩 장면



신문 기사 스크랩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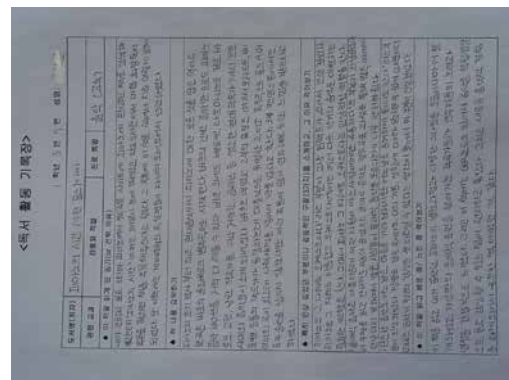
정보통신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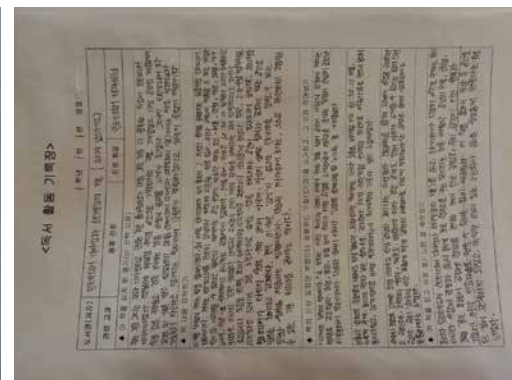
- 최근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과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 국내 주요 일간지 3종, 경제신문 1종, 영자신문 1종 등을 구독하여 1층 미디어 카페 앞 신문 거치대에 두고 필요한 학생이 가져가서 동아리 활동 시간이나 공강 시간 등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함께 돌려볼 수 있도록 함
- 진로상담실에 지난 신문을 모아 두었다가 특히 1학년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관심과 흥미가 있는 기사를 A3 도화지 앞면에 스크랩함. 이때 책상을 모두 물리고 교실 가운데 신문을 쌓아 놓고 희망 학과(전공)가 같은 친구들끼리 소그룹을 형성하여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하여 진로를 탐색함
- A3 도화지 뒷면에는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기자라고 가정하고 진로 희망 학과(전공)를 고려하여 직업신문 기사를 작성함. 예를 들어 의약,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바이오신문을, 초등교사는 교육신문을, 경제학과는 경제신문 기사를 작성하고 브리핑하게 함
-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과 신문 기사의 정리 및 직업신문의 작성과 브리핑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키우고, 학생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 반영뿐만 아니라 수시 면접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독서 진로 탐색 활동

-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에 자신의 진로 희망 학과(전공)를 고려한 책이나 읽고 싶은 교양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하고 책을 읽게 된 동기, 책 내용 요약, 인상 깊은 구절, 책을 읽고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자필로 적어 독서활동 기록장을 작성하고 A3 도화지의 비주얼씽킹 작성 뒷면에 붙임
- 아로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입생들의 서재를 검색하여 합격생들의 추천 도서를 정리하고 새내기들이 어떻게 독서하였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독서에 참고할 수 있게 함
-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비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1·2’, ‘어린왕자’(한글판/영문판), ‘동물농장’(한글판/영문판)을 구입해 개인별로 배분하고 진로와 직업 수업 시간 또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진로 탐색활동을 할 수 있게 지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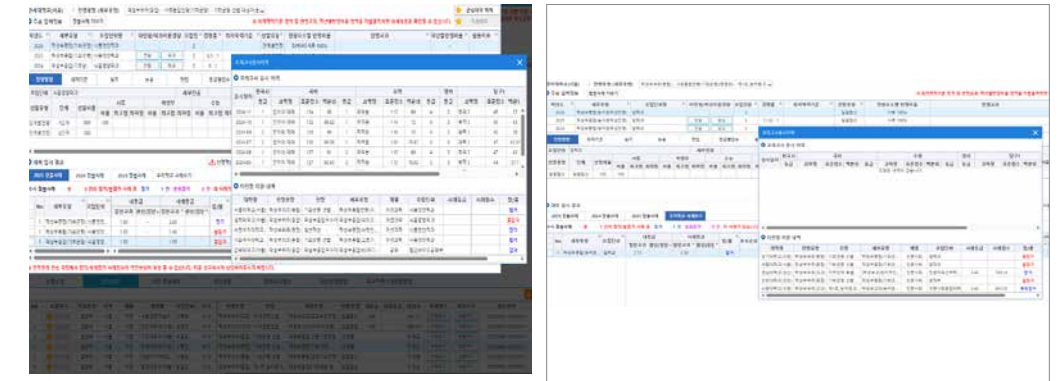


진로와 직업 교과 관련 독서활동 기록장



창체 진로 관련 독서활동 기록장

●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



대입 프로그램 활용 상담(기회균형)

대입 프로그램 활용 상담(우리 학교 사례)

- 의성여자고등학교는 1학년 40명, 2학년 30명, 3학년 60명인 농어촌 소규모 학교로, 중학교 상위권 학생의 일부가 특목고, 자사고 또는 인근 시내 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임. 또한 교사들의 인사 이동이 잦아 신규 교사와 미발령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70%가 넘고 있어 진로·진학 지도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편임
- 대교협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은 3학년 담임들이 학생들을 상담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1, 2학년 담임들은 유니브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대교협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학년 위주로 상담함.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나이스에서 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1:1 대면 상담 시 활용함
- 상담 시 대학이 아닌 자신의 진로 희망 학과(전공)를 우선하여 수시 위주로 하향 2, 안정 2, 상향 2곳을 기본 틀로 잡고 상담함. 예를 들어 간호사가 희망인 학생(내신 평균 2.63, 수능 2합 8)이 안동대 교과, 계명대 교과, 경북대 기회균형과 지역인재, 을지대 교과, 연세대(미래) 기회균형을 지원하여 최종 경북대(지역인재), 연세대, 안동대에 합격함. 수능 등급 최저 없이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으로 자신인 원하는 1순위 대학인 경북대로 진학함
- 희망 학과(전공, 계열)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관심 대학 6곳을 저장해 각 대학의 모집 요강, 전형 유형, 내 등급과 사례 등급을 비교하게 하고 지원 학생들의 최근 3년간의 합격·불합격 여부, 타 전형·학과 지원 경향을 분석하여 상담함. 특히 우리 학교 사례 보기를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내신, 수능 등급,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상담함. 합격한 선배들의 사례는 후배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경향이 있음.

기회균형(농어촌) 전형 합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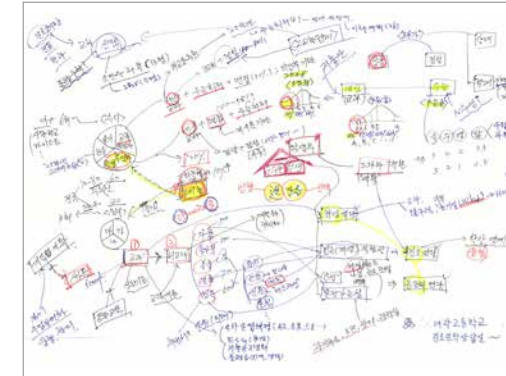
	2024 대입(학생 수 47명)	2025 대입(학생 수 40명)	2026 대입(학생 수 60명)
수도권	차의과학대: 약학/*미래융합 고려대: *건축/보건환경 중앙대 *건축 경희대: *건축/경영/화학공학 세종대: *경영, 명지대 *아동학 단국대: *경제, 아주대 *경제 수원대: *도시부동산	중앙대: *영어영문 이화여대: 생명과학/*건축/*영문 명지대: *법학/*정보통신 단국대 *경영 수원대: *정보통신/*인문사회 경기대: AI컴퓨터	서울대: *경제(1.46) 연세대: *생명공학(1.45)/*식품영양(1.9) 중앙대: 경영(탐구)(2.7) 국민대: AI빅데이터(학종)(2.7) 덕성여대: 글로벌융합(학종)(3.91)
지방 국립대	경북대: **간호/*치위생/경영 대구교대: **초등교육	경북대: *역사교육/공학첨단 충남대: *지식융합 경상대: *경영정보/*식품영양 강원대: *전자, 강릉대: *식품영양	경북대: **산림조경(4.11) *청주교대(3.38) **대구교대(3.38)
기타	연세대(미래): *간호 영남대: *컴퓨터	계명대: *경영(3명) 순천향대: *AI빅데이터	-

*표시: 기회균형, **표시: 지역인재, 2026 대입은 1단계 합격, ()는 내신등급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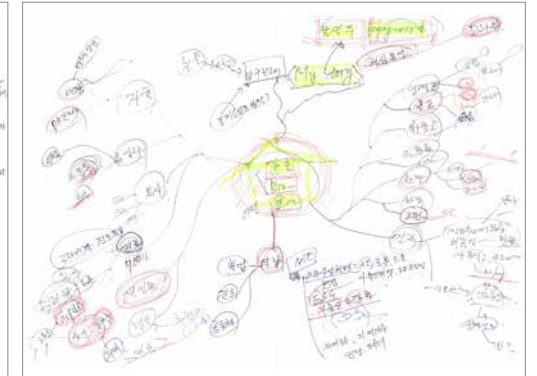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대입 전형의 이해 및 진로 로드맵 만들기

- 대입은 수시와 정시로 지원이 가능하나 본교는 거의 대다수가 수시로 진학하므로 수시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음.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이 있는데, 다수의 학생이 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고 소수의 학생이 실기전형을 준비하나 논술은 없음. 학생 수가 적어 내신 관리가 쉽지 않으며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서울 주요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으므로 진학의 방향을 학생부종합과 기회균형(농어촌)에 초점을 두어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고 면접 대비를 위해 토론 발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함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생의 장래 진로 희망과 학과(전공)를 바탕으로 진로 로드맵을 A3 도화지에 작성하여 진로·진학을 상담함. 예를 들어 간호사가 꿈인 학생은 바이오계열로 잡고, 생명·화학 등 진로 선택과목과 융합선택 과목을 설명하고 전공 관련 이수 권장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함



대입 전형의 이해



진로 로드맵 및 학생부 세특 키워드

• 대학보다는 학과(전공)를 우선해 상담

-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략적인 내신 성적과 석차를 가늠할 수 있는데 이때 목표 대학교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을 고려한 진로·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함
- 실제 목표 대학 중심으로 상담한 학생보다 희망 대학을 낮추더라도 진로를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 또한 기대 이상으로 진학하는 경향을 보여줌

4. 후기 및 추후 개선 사항

- 본교와 같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입시 정보, 내신 등급의 어려움, 수능 최저의 저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어진 환경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교육과정 이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각 대학 입학처 등을 통한 대입 전형에 대해 이해한다면 수능 최저 없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음
- 수시 1단계 합격을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는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학생부에 의미 있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NIE 활동, 독서, 토론, 발표, 실험, 논문 검색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제시문 면접은 단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학교생활과 수업 활동 중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필요함





**학생 맞춤형 진학 프로그램
[진학 A.C.E.]를 통한 일반고 2년 연속
다수의 서울대 합격자 배출**

양정고등학교
교사 최경해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학생들이 외부 컨설팅이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진학 설계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진학 지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학 정보 제공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뿐 아니라 진학 역량까지 균형 있게 강화하고, 학생별 진학 설계 프로그램, 대학별고사 대비 프로그램과 진로·진학박람회 운영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학 경로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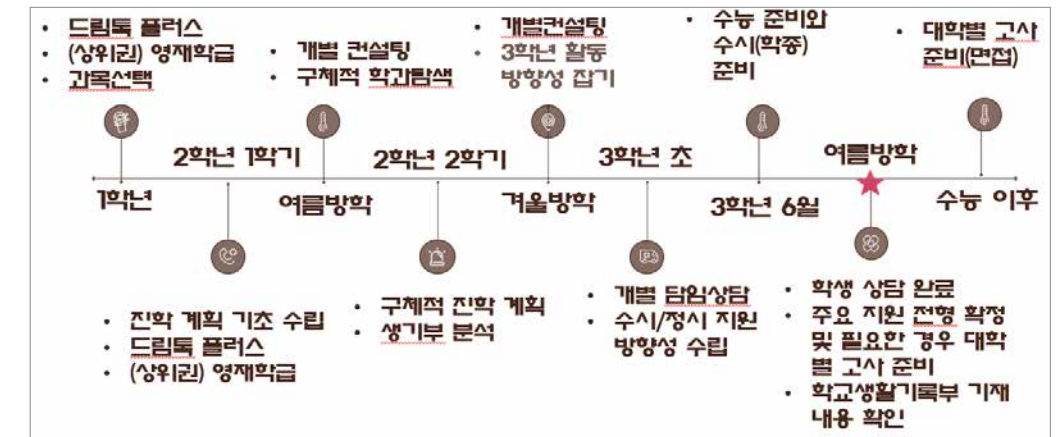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하여 자신이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3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3학년 재학생 141명 중 서울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3명[의예과(사회통합), 재료공학부(지역균형전형), 경제학부(일반전형)]과 정시모집으로 1명(체육교육과(기회균형특별전형_저소득)) 등 총 4명이 진학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도 3학년 재학생 139명 중 서울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4명[독어교육과(지역균형전형), 약학대학(지역균형전형), 경제학부(일반전형), 간호학과(일반전형)]이 진학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학생에 따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정시 수능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 지원설계 프로그램인 [진학A.C.E.]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Academy(학생아카데미, 드림톡플러스, 학부모아카데미, 교사아카데미) 활동에서는 학생 연 12회 이상, 교사 연 10회 이상, 학부모 연 3회 이상 연수를 실시해 진로 탐색과 진로 설계에 따른 진학 설정을 도와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Consulting(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학생 맞춤형 대학별고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별고사에 따른 학생 맞춤형 모의 면접 실시 및 피드백 제공 등 전형 유형에 따라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하였습니다. Evaluation(DB 구축, 교육활동 및 평가)에서는 개별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진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통해 학년별 진로·진학 역량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별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연구하고 싶은 분야 등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기초 진로상담(1학년) 과정을 구축했으며, 관련 학과 탐색활동을 통해 개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에 더 초점을 두고 주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심화 상담(2~3학년)을 체계화하는 등 진로 설계에 따른 학생 개별 맞춤형 컨설팅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료 선생님들도 진로·진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다수의 교사가 학생 맞춤형 컨설팅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성하고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illegible]

● Academy 활동 1. 학생 Academy

- 추진 내용: 진학진로부 자체 연수 및 찾아가는 진학지도 컨설팅(교육청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의 대입 및 진학 이해도 제고
- 이후 관리: 담임교사와의 대입 상담과 연계



● Academy 활동 2. 드림톡플러스 & 양정 진로·진학박람회

- 추진 내용: 학년 내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전문 연구원, 실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여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 대입 설명회를 통해 대학 소개 및 입시 정보를, 학과 설명회를 통해 미래 유망 학과의 진로 및 준비 사항을, 졸업생 멘토링을 통해 고교 생활 및 진로 설정 등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
- 이후 관리: 교과, 동아리, 독서활동과 연계하여 학생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연구 능력을 기름
- 세부 프로그램 안내: 드림톡-플러스(직업인 초청 특강), 드림톡-아카데미(학과·전공 이해), 드림톡-아카이브(진로·진학 정보 공유), 드림톡-챌린지(심화 탐구 및 인턴십 프로그램), 양정 진로·진학박람회(대입 설명회, 학과 설명회, 졸업생 멘토링)

구분	연번	분야	강사	1차시	2차시	3차시
대입 설명회	1	간접대		17	18	17
	2	동명대		15	15	17
	3	동서대		18	17	18
	4	동아대		18	18	18
	5	동원대		19	17	18
	6	신라대		11	17	15
	7	한국해양대		18	18	16
	8	반려생물학과, 식물영양학과	김성대 홍보단	18	16	18
	9	스포츠재활학과	동명대 홍보단	18	17	18
	10	방송영상학과, 게임학과	동서대 홍보단	17	18	18
	11	간접대, 하이 유메디칼학과	동아대 홍보단	18	18	18
	12	경찰행정, 국제경찰행정학과	동원대 홍보단	18	18	18
	13	한류대학	신라대 홍보단	17	18	18
	14	화학공학과, 융합소재공학부	무경대 홍보단	18	18	18
졸업생 멘토링	15	부산교육대(초등교육과)	김O환	18	18	18
	16	경북대(지리학과)	김O환	18	18	18
	17	충북대(심리학과)	박O호	18	17	18
	18	부산대(교육학과)	김O환	18	18	18
	19	부산대(교육학과)	김O환	18	18	18
	20	경북대(교육학과)	김O환	18	18	18
	21	한국에너지공과대(에너지공학과)	김O환	18	18	18
	22	경북대(환경공학과)	김O환	18	18	18
	23	부산대(지리학과)	김O환	18	18	18
	24	부산대(지리학과)	김O환	18	18	18

전교생 대상 매년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 진행
([예. 제11회 양정 진로·진학박람회(2023.08.25.금)])

전교생 대상 매년 학기마다 진행([예. 드림톡
플러스(2023.10.24.화~11.17.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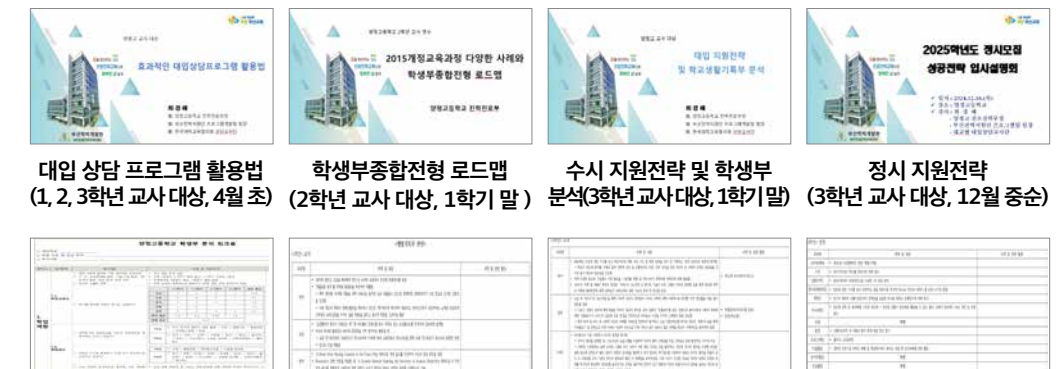
● Academy 활동 3. 학부모 Academy

- 추진 내용: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 대학 진학 결과 공유 및 입시 체계와 본교 진학 설계 안내, 교육청 프로그램 또는 진학진로부 자체 연수를 활용한 자녀 대학 진학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입 궁금증 해소
- 이후 관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진학 전략 수립



● Academy 활동 4. 교사 Academy

- 추진 내용: 진학진로부 자체 연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례 공유 및 진학 PEN 플러스와 함께(학생부종합전형 모의평가 실습, 교육청 프로그램)를 통한 교사의 진학 지도 전문성 강화
- 이후 관리: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결 지어 교사의 진학 역량 증진 지원



2학년 겨울방학 또는 3학년 초 담임선생님 워크숍을 통해 진학 방향성 설정



● Consulting 활동 1.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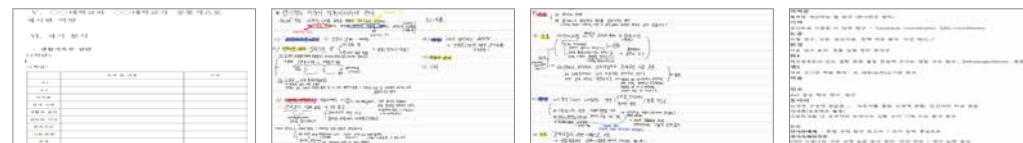
- 추진 내용: 담임선생님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및 각 학년부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진학 전문가 선생님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희망 진학 실현 가능성 컨설팅 실시
- 이후 관리: 전형 유형에 따라 진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학생 개별 맞춤형 대입 전략 모색



선택 전 상담자료 작성(학생)
대입정보포털(대학, 학과, 전형 및 입시 결과 탐색) 활용

컨설팅

대입정보포털(여디가) 활용
대학과 학과 조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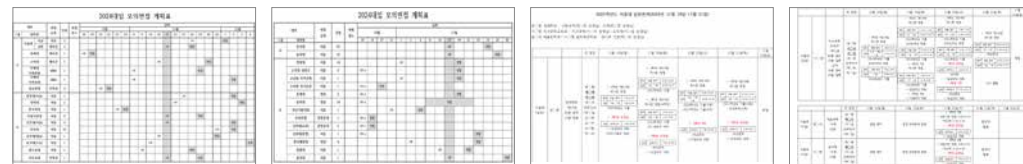


자기 분석(학생)

컨설팅 후 학교생활기록부 방향성 설정(겨울방학 활용)

● Consulting 활동 2. 학생 맞춤형 대학별고사 프로그램

- 추진 내용: 10~12월 초 수시모집 대학입시를 위한 자기 PR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지원
- 추진 방법: 대학별 일정을 기준으로 TF팀 결성을 통해 정확한 대입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른 학생 맞춤형 대학별고사 모의 실시 및 피드백 제공



3학년 학생 전체 학생 대학별고사(모의면접) 계획표

서울대 일반전형 제시문 면접 준비

MMI 면접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모의 면접 실제 모습

● Evaluation 활동 1. 학업성적 DB 구축

- 추진 내용: 대입 상담 프로그램 진학 지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 이후 관리: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 안내 및 학년별 학업성적 분석



전교생 학생 개별별 상담자료 한 장 정리

전교생 자료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관리 및 활용

● Evaluation 활동 2. 교육활동 및 평가

- 추진 내용: 리로스쿨 및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교과별 활동자료 관리, 전국연합 학력평가 분석 및 문제점 보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학력 향상 방안 모색
- 이후 관리: 각 학년부와 협조를 통한 학년 내 방과후 수업 방향 설정 및 정독실 운영 및 관리



리로스쿨을 활용한 교과별 활동 정리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교과별 활동 정리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진학·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 개별 맞춤형 상담과 전형별 대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외부 컨설팅보다 학교에서 제공한 진학 준비 과정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학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사들이 본인의 교과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도 학생 지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시 대비 학업 프로그램과 정기 모의평가 운영을 강화하여 전형별 요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이후 학생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출결 관리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1·2학년 단계에서의 조기 진로 탐색과 학과 연계 상담을 확대하여 3학년 진학 준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구조 역시 보완해야 합니다.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이루어 낸 공교육 신뢰성 회복

덕암고등학교
교사 최재원

1. 진로·진학 지도 목표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본교 학생들의 우수 학교 진학을 위한 공교육 중심의 진학 중심 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 과정

- 개별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대교협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화
 - 2023년까지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과 사설 입시 기관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나, 2024년부터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으로 일원화
 - 전 학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에 교과, 비교과 성적을 입력하여 상담 자료로 활용
 - 상담 프로그램 일원화를 통해 학생의 경우 본인의 현재 성적과 희망 진로 등을 일원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고, 담임교사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자료가 일원화되어, 성적 변화에 따른 성적 상담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과 실용성이 있음
 - 신규 교사의 담임 상담 업무에도 일원화된 대입 상담 프로그램 사용으로 효율적으로 인수인계 및 상담 업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2, 3학년으로 학생이 진급하여도 누적된 상담 자료 내용과 활용을 통해 학생 파악이 쉽고 편리한 장점이 있음
 - 본교 재직 중인 대교협 상담교사 2명이 프로그램 확인 및 신규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대교협 프로그램에 손쉽게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대교협 프로그램으로 상담하면서 학생들의 개별 교육환경을 살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회균형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파악하기 용이한 면이 있었음. 한 예로 2025년 의예과 기회균형 합격 학생을 상담하여 지원한 결과 최종 합격함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 연수 및 담임교사 상담 방안 연수

• 중 3 학생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및 대입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 2018년부터 올해까지 김제 지역 중 3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안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원활한 진학 지도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실시함
- 특히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고교학점제 및 선택과목 안내와 학습방법 및 대입 준비 방안을 본교 대교협 상담교사 2명이 실시, 지역민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냄
- 023학년부터 2025학년도까지 실시한 지역 중3 학생 학부모 대입제도 안내 설명회



2023년



2024년



2025년

• 저경력 교사 멘토-멘티 활동 및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연수를 통한 상담 역량 강화

- 진학 유경험 교사(대교협 상담교사)와 신규 교사 간의 멘토-멘티 활동을 통한 진학 지도 능력 향상 및 학교 구성원 간 진학 정보 공유
- 우수 교사(대교협 상담교사) 연수 및 교사 간 1:1 멘토링을 통한 진학 지도 능력 향상





고교학점제 관련 담임 및 신규 교사 연수(대교협 상담교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자체 연수(대교협 상담교사)

3. 진로·진학 지도 과정에서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 및 방법

• 전 학년 테마별 돋보기 프로젝트(주제탐구 신문 만들기) 실시

-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정보 제공 형태의 신문으로 제작해 발표해 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고, 나눔과 배려, 협력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
- 다양한 관심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탐구 분위기에서 교과에 관련된 문제 탐색과 해결 과정을 배양
-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조사방법론을 적용하여 실제 리서치 활동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신문을 완성함으로써 탐구 역량 함양



테마별 돋보기 프로젝트 발표회 및 제작된 신문 예시



• 본교 졸업생을 활용한 대학생 멘토링 제도 운영

- 졸업생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설정
- 멘티 학생에 대한 멘토의 장기 계획(5월~11월) 멘토 활동을 통한 진로 멘토링 운영(최소 10회 이상 지속적인 멘토 활동 운영)
- 멘토-멘티 학생 간의 협의와 계획을 통한 강의, 토론회 상담 활동 실시



본교 졸업생 활용 대학생 멘토링 제도

• 교내 모의면접 지도 실시

-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지하여 면접 준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20년 이후 모의면접을 실시해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 학생 개인의 전형과 성적 파악을 통해 객관적인 학생 수시 지원 확인 및 면접 계획 수립 후 학생부종합전형에 맞춤형으로 면접 자료 및 정보 제공
- 반복적으로 모의면접을 실시한 후 학생 모의 면접 자율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모의면접 연습 실시



교내 모의면접



4. 후기 및 추후 개선사항

- 학생 진로나 적성에 맞춘 다양한 학과 및 대학 합격이 이루어지도록 학생부종합전형에 맞춘 진학 상담으로 의·약학계열에 다수 합격자 배출
-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춘 효율적이고 개별화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연수 실시로 생활기록부 기록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짐
- 다수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가 발생함에 따라(특히 의예과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지역 내 우수 학생 본교 지원율 상승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의욕 및 목표의식 고취, 진학 지도에 대한 자신감 함양
- 다른 도시지역 우수 학교나 자사고 진학을 하지 않고도 우수 학교 및 본인 진로에 맞춘 진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지역 학부모들의 기대감 상승, 자녀 교육을 위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키는 학부모가 현저히 감소함



2025년

대입 진로·진학 지도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사례집

인 쇄 2025년 12월
발 행 2025년 12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주 소 (08504)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23
전 화 02-6919-3856
f a x 02-6919-3869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